

참빛

The Church of Christ

최수열 선교사
(1916-2003)
한국선교 70주년

2024
11·12
Vol. 406



최수열 선교사를 기리면서

(최수열 선교사 한국선교 70주년 기념 기도)



미국교회에서 대학 모금 활동 후 귀국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굽디굽게 물들고 모든 열매들이
대지를 향해 고개를 숙이니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주께로부터 옴이니
오직 주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교회 공동체의 소망이 주님께로부터
나음을 믿고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1954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린 선교사들의 발자취를 기억하며
최수열 선교사 한국선교 70주년을 기념하는 해로 삼아주신 주님!
낮선 땅에서 많은 선교사들이 헌신하며 ‘국물 없는 밥을 먹는 듯’ 때론
척박한 땅에서 울며 눈물로 씨를 뿌린 기도와 구원의 열정은
엄마의 분꽃 같은 헌신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은 이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수많은 기도손을 모아
선교의 불씨로 삼으셨습니다.

주님!
탐욕에 눈이 돌아가 철제하고 나누며 살기보다는
끝없이 욕망을 부풀리며 살고 있지 않은지요.
고통의 역사를 외면한 채 예배당 안에서 감사와 기쁨의 노래만 부르지는 않는지요.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뜻’이라는 허울 좋은 고백으로 치장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성찰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교하심을 믿사옵니다.
삶과 죽음, 믿음과 행복으로 사역해 오신 선교사님들의 숭고하고
귀한 발자취를 기억하며 늘 감사하며 케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사랑한다는 일은 기쁨과 고통, 아름다움과 시름,
화해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
책임지는 일이어야 함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잊지 않으려는 몸부림’으로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늘 씨앗을 뿌리는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최승기 전도자 / 한길 그리스도의 교회



참빛

특집 최수열 선교사 한국선교 70주년

1

이달의 기도

최수열 선교사를 기리면서

4

머리글

왜, 최수열 특집인가?

7

메시지

힘차게 매진해야 할 1958년

12

논단

최수열과 KCU(강서대학교)

18

최수열과 한국선교 :

아시아 선교를 향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선교를 생각하다

1. 최수열의 생애와 신앙을 되짚다
2.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
3. 최수열 한국선교의 역사적 의의는?
4. 최수열이 개척한 그리스도의 교회
(강서, 화곡, 선교연합교회)

36

최수열과 기독교 교육 정신 :
학교설립을 통해 복음의 지평
확대를 꿈꾸다

1. 강서대학교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은?
2. 최수열이 남긴 유산과 우리의 과제는
3. 그리스도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의
순기능적 관계
4.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55

인간 최수열 선교사를 말하다

1. 짚신-벼발(논)과 묵화밭



QR코드를 스캔하면 「참빛」에
대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
<http://truelight.at>



CONTENTS

2. KCU에 대한 나의 이해
3. 쉬임 없는 열정적인 모금운동가
최수열
4. 최수열, 뜨거운 가슴을 가진
복음 선교사

74

최수열 설립자 재단

1. 최수열 설립자 재단의 설립
동기와 목적
2. 최수열 설립자 재단의 현재와 미래
3. 최수열 설립자 포럼의 의의

87

영문 원고

1. Malcolm E. Parseley

2. Phillip H. Chesshir
3. Rand H. Chesshir
4. Mark H. Chesshir

104

최수열 선교사 연보

110

교계소식

그리스도의 교회 교계 소식

117

단상

나는 한국에서 죽으려 한다

2024년 11·12월호 통권 406호(제55권 6호)

발간처 참빛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57-7 **전화** 010-3078-0143 **발행인** 기준서

시니어 에디터 임학균 **편집 에디터** 김진두 신성호 전신호 정민석 함동수 **교정 에디터** 김미진

순현정 **인쇄소** 가나문화사(02-2273-1849) **디자인** 씨티에스미디어

본지에 실린 글과 사진은 참빛사 소유입니다. 인용 시에는 반드시 「참빛」 몇 권 몇 호에 실린 것인지를 명기할 것이며, 전체 문장과 사진을 인용할 때에는 사전에 허락을 받기 바랍니다.

머리글

왜 최수열 특집인가?





최수열 선교사 환영 예배, 1954년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획을 세운 그룹을 꼽는다면, 첫째는 환원하여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세운 전도자들, 둘째는 6·25 전쟁 참전을 통해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을 품고 들어온 미국의 선교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국에 세워진 최초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1930년에 세워진 함전 그리스도의 교회(함경도 북청)다. 이 교회는 감리교 목사였다가 미국 유학 중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여 1930년에 한국으로 돌아온 동석기 전도자가 설립하였다. 그는 함전교회를 시작으로 1931년에 시흥리 교회를 세웠고 1932년에 수동리 교회, 1936년에 임자동 교회를 세웠으며, 이외에도 맹경리 교회, 진산리 교회, 수서리 교회 등을 설립했으며, 남한에는 내수중앙 그리스도의 교회를 설립하였다. 1945년 광복 후에 공산정권이 북한 지역을 장악하면서 아쉽게도 모든 교회들을 잃

게 되자, 이후로는 내수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와 이흥식 전도자를 중심으로 한 남한 선교가 힘을 얻게 되었다.

동석기 전도자와 아울러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전파한 사람은 강명석이다. 강명석 전도자는 1936년에 울산 교회를 비롯하여 경주 교회, 월성의 동방 교회, 진양의 반성 교회 등 여러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그리고 1937년에는 서울로 상경하여 신당정, 동교정, 대현정, 인천의 송현정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다. 다만 47세라는 젊은 나이에 소천함으로 더 왕성한 복음의 꽃을 피우지 못하고 교회들이 힘을 잃게 되었다.

이렇게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는 한국인들 자신에 의해 시작되었다. 그러다가 6·25 전쟁에 참전한 군인들 중 한국선교의 꿈을 가지고 전쟁 후 입국한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의 문이 넓게 열리게 되었다. 데일 리치슨(Dale Recheson) 선교사가 1954년 5월에 첫

선교사로 들어왔지만 짧게 사역하고 미국으로 돌아간다. 동년 11월에 헤스켈 체셔(L. Haskell Chesshir, 최수열) 선교사가 들어와 선교사역을 감당하였으며, 1958년에 아더 홀튼(A. R. Holton)을 비롯한 윌리엄 리차드슨(William A. Richardson, 이철선) 선교사 그리고 성경통신교육원(BCC)를 세운 빌 램지(Bill Ramsay),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를 맡은 파수리(Malcolm Parsley) 선교사 등이 활발하게 선교사역을 펼쳐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화에 기틀을 잡아주었다.

참빛 406호는 최수열 선교사를 특집으로 정했다. 아마도 “왜, 최수열인가?” 라는 물음도 있겠다. 최수열 선교사는 한국을 통해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큰 꿈과 비전을 가졌다. 1954년에 입국한 그는 다음 해인 1955년 「바른길」이라는 신앙잡지를 창간하였는데 이것이 1962년에 「그리스도의 교회」로 그리고 1964년에 「참빛」으로 그 이름이 바뀌어 오늘까지 이르고 있다. 문서가 가진 힘을 알았던 그는 문서선교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의 정신과 복음을 한국 땅에 전하고자 했던 것이다. 나아가 교회지도자 양성을 목적으로 「한국기독교학원」을 설립하였고, 초대원장으로 홀튼

선교사가 취임하였으며 신학과, 기독교사회사업학과 및 기독교교육학과로 개교, 학생 19명을 선발하였다. 이후 「한국기독교학원」은 「그리스도신학대학」, 「그리스도대학교」, 「KC대학교」로 개명했다가 지금의 「강서대학교」로 이어져 오고 있다.

그동안 한국에 수많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지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교회들이 사라지고 말았다. 특히 개교회들의 역사와 문서 자료가 정리되지 않아 마치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그리스도의 교회의 역사를 되돌아볼 때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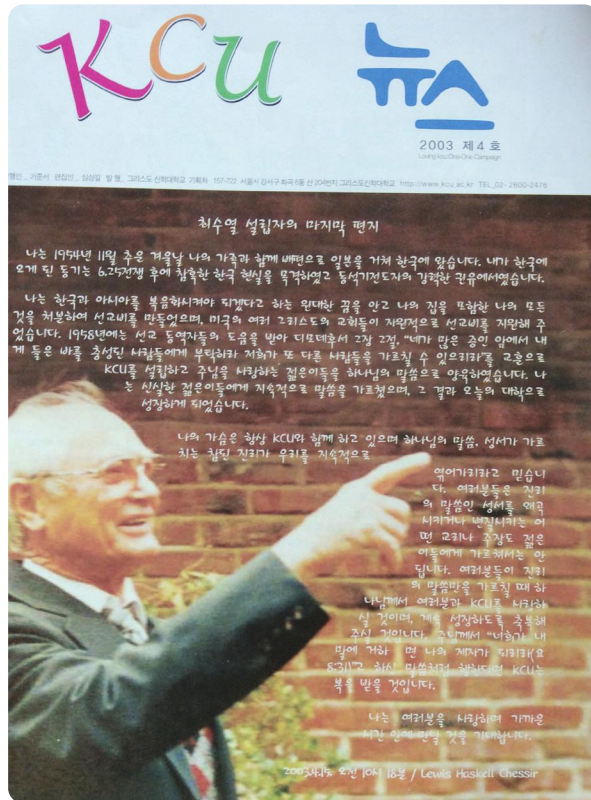
어두울수록 더 빛나 보이는 별처럼 최수열 선교사가 빛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그는 문서선교와 교육선교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달아 알고 있었고, 참빛과 대학을 통해 지금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 복음의 역사를 써나가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최수열 선교사의 한국선교 70주년을 더욱 뜻깊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이를 기회로 다시 한번 한국선교와 선교사들의 열정과 신앙을 되돌아보며 새롭게 일어나는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되길 소망한다.

전 신 호 / 참빛 406호 책임편집위원



메시지

힘차게 매진해야 할 1958년



최수열 선교사의 마지막 메시지, 2003년 4월 15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툇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빌 3:13-14)

힘차게 매진하는 데는 세 가지 요건이 있다.

- (1) 우리는 현실에 만족하지 말아야 하며
- (2) 우리는 과거에 일을 잊어버려야 하며
- (3)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매진하여야 한다.

새로 결혼한 청년 남녀가 부모의 집에서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 만족할지는 모르겠으나, 자기 자신의 집을 갖지 않으면 독립할 수가 없을 것이다. 자기 일자리를 구하여야 하며 집을 짓고 가구를 마련하고, 아이를 낳아 장성한 때까지 양육해야 한다. 처음에는 부모의 집보다 좋지 못할 수 있으며 처음에는 크고 좋지 못할 것이다. 한 가정을 세우려면 오랜 세월 걸려 준비해야 하며, 한층 더 큰 일을 향하여 전진하여야 한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교회 안의 현재 상태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1957년 지난해에 최선

을 다했다고 할지라도 오늘의 모습에 만족할 수는 없다. 지난 1957년에 성장한 것처럼 앞으로도 매일 매일 더 성장해야 한다.

천국은 마치 여인이 가루 안에 숨겨둔 누룩과 같다. 이것은 삼시간에 가루 전체를 삭힌다. 이와 같이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이 누룩과 같다. 우리가 지금 헌집이든 새집이든, 크든 작든 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기본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교인을 더 많이 인도하려면 더 크고 더 훌륭한 예배당이 필요하다. 사실상 훌륭하고 큰 예배당이 있어야 이에 따라 교인을 더 많이 인도할 수 있다.

우리들은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나 이 현상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매일 매일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와 그의 나라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저들이 현재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는다. 더 큰 토지를 마련하며 집을 지으며 더 좋은 가정을 건설하려고 한다. 저들은 지금 타고 다니는 차량이 좋기는 하나 그것에 만족하지 않고 매년 새로운 차량을 만들어내고 있다.

나는 1957년에 비행기로 미국 갈 때 28시간이 걸렸다. 만일 배로 태평양을 건너간다면 약 23일이 걸리고, 낡은 배로 간다면 몇 달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세계는 현재의 여행 속도에 만족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의 항공 회사들은 동양에서 미국으로 단 여덟 시간에 갈 수 있는 최신식 비행기를 주문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보다 한 걸음 더 앞서서 현 상황에 만족하지 말고, 보다 더 좋고 새로운 환경을 바라보며 주님 사업에 힘차게 정진하며 매진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는 걸핏하면 과거를 예찬하는 경향이 과하다. 우리는 찬란했던 과거의 역사를 자랑하며 과거를 동경하고 과거 업적을 이야기하며 드러내기를 즐겨한다. 그러나 과거는 과거가 좋았든 나빴든 다시 고칠 수 없다. 과거는 과거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13-14절에서 앞에 있는 장래 일에 전심전력으로 집중할 수 있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과거를 잊어버려야 한다고 말씀하였다.

사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었으나 잘못을 깨닫고 밖으로 나가서 말할 수

없는 뉘우침과 후회로 몹시 울며 주님께 다시 돌아와서 지나간 그의 일생을 주님께 훌륭하게 바쳤다. 결국 베드로가 주님을 위하여 힘차게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 과거의 과오와 어부 시절에 성공하던 일들을 다 잊어버릴 수 있었던 까닭이라 할 수 있다.

가룟 유다도 자기의 주님을 내어 주었는데, 그 역시 잘못된 일임을 깨달았으나 과거의 허물을 잊어버리고 좀 더 위대한 생활에로 전진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을 만큼 회개를 못 하였다. 즉 가룟 유다는 과거의 자기 죄악을 잊어버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는 죄악을 감당하기에 너무도 무겁고 괴롭다 하여 밖에 나가 목매어 죽었다. 교인들 중 어떤 이들은 좋은 기반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 과거의 성공보다 더 큰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과거의 업적은 앞으로 더 위대한 사업으로 넘어가는 디딤돌에 불과하다.

1957년도는 지나갔다. ‘작년에 좋은 기회가 많이 있었으나 그것을 잘 이용치 못하고 지나갔다.’며 애석해한다. 그러나 베드로와 같이 실망하고 슬피 울며 은사를 구할 뿐만 아니라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힘차게 매진하자. 또 우리는 과거 발전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의 충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모든 과거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1958년 올해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과업에 우리 힘을 다하여 달음질하자.

“우리는 앞에 있는 일정한 목적을 향하여 힘차게 돌진하자.” 이 문구는 경주장에서 나온 말이다. 경주 선수는 민첩한 태도로 힘차게 자기 몸을 움직여 뛴다. 그는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왜냐하면 급히 달음질하는데 있어 거친 길에서 넘어질지도 모르는 까닭이다. 그는 오른쪽이나 왼쪽을 보지 않고 앞에 있는 푼대만을 바라보고 힘차게 달린다.

이것이 우리가 교회의 일을 하며 꼭 지켜야 할 방법이다. 만일 지난 1957년 연말에 교회 교인 수가 백 명이었다고 하고, 우리가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충실하게 노력하며 서로 격려 고무해 나갈 것 같으면 1958년 연말에는 우리들의 교인 수가 이백 명으로 늘어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어떤 사람이든지 한 달에 한 사람씩을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면 인도할 수 있을 것이며 최소한 일 년에 한 사람은 인도할 수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만일 우리가 교인들에게 우리의 생애

에서 우리나는 진정한 기쁨은 우리들이 어떤 과업을 완수함으로써 맛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지 못한다면 교인의 대다수를 잃어버린 것이다.

우리는 우리들 현재의 지식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 교인이 백 명이라 하고, 교인 한 사람이 하루에 성경 몇 장씩을 읽는다면 교인 전체의 독서 수량은 교인 전체가 매주간 성경전서를 몇 번 봉독한 양이 된다. 성경을 읽는 교회는 장성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작년에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왔다. 그러나 그만한 정도의 선행 으로서 만족할 수 없고, 1958년에는 이 같은 좋은 사업을 더욱 많이 하여야 한다. 어린이들은 어린이로서는 무결하나 아직 성인 까지 자라지는 않았다. 어린이의 생활에는 성장이 있어야 한다. 도토리도 도토리로는 완전하나 참나무로서는 아직도 미완성품이다. 항상 완전하며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목적을 완수하려면 어린이는 장성하여 어른이 되어야 한다. 또 도토리는 싹이 트고 자라고 자라서 큰 참나무가 되어야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의 교인도 자라나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들과 함께 계시기는 하나, 우리에게 아무 성장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서 떠나신다. 이는 하나님께서는 성장함을 요구하시는 까닭이다. 자연계에서도 태양 빛과 비와 땅과 씨앗은 매년 온 세계 인류의 식량을 보급하기 위하여 성장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도 주님의 눈과 귀와 손발이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며 고아와 과부와 불쌍한 사람들이 도움을 받도록 돌보아야 한다. 이 같은 모든 거룩한 사명은 각 개인 개인이 다 자기의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들이 자기의 능력을 통합하여 노력함으로 서만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 것이다.

1958년 새해를 축하하며, 올해에도 성장함으로써 주님을 기쁘게 하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최수열 선교사

(바른길 제1집 / 1958년. 어법과 문절을 현대어로 다듬었다)

최수열과 KCU(강서대학교)¹⁾



최초의 대학 건물 상량식, 1962년 7월(현 최수열 기념관) 우측 최수열, 좌측 파수티

내가 최수열(L. Haskell Chesshir) 형제를 알게 된 것은 1954년 6월, 미 공군의 명령으로 13개월간의 복무를 위해 한국 수원 공군기지에 배치되었을 때부터였습니다. 나는 1954년 11월 29일, 최수열 형

제와 그의 아내 에니드, 딸 제네타, 세리, 비키, 그리고 아들 필립, 랜디를 처음 만났습니다. 그들과 추수감사절을 함께 보내며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최수열은 가족과 함께

한국에 온 목적에 대하여, 대학을 세워서 모든 학생으로 먼저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고, 그다음에는 대학에서 받은 교육을 통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부양할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이 그의 희망이라고 했습니다. 최수열의 주된 목표는 설교자와 교인들을 성경적으로 준비시켜 졸업 후 교회를 세우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계획이 매우 훌륭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부산 공군기지로 전출되어 한국에 있는 동안 그를 다시 만나거나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약 5~6개월 후, 나는 한국으로 돌아와 한국 사람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위해 제 인생을 바치기로 결심하게 되었고, 1955년 7월 한국을 떠났습니다. 이후 미국으로 돌아가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1958년 초에 최수열은 나에게 연락하여 대학원에 진학

하여 성서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성경 학과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때 최수열 형제가 대학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는 1960년 10월 16일 한국에 도착했을 때, 최수열은 김포 공군기지 근처의 등촌동 땅을 구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당장 교육을 계속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2층짜리 건물을 임대하여 이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나는 왜 효창동 교회 건물을 떠났는지 궁금하여 물어보았습니다. 최수열 형제, 하딘 형제, 그리고 그곳 선교 책임자였던 홀튼(A. R. Holton) 형제로부터 각각 들은 내용은, 홀튼 형제가 교회가 대학 운영에 관여하는 것에 대하여 교리적으로 옳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에, 만일 댄 하딘(Dan Hardin)과 윌리엄(빌) 리처드슨(William

1) 필자(Malcolm E. Parsley)의 원고 제목은 “최수열 형제와 그리스도대학(Brother Chesshir and KCU)”이다. 필자 원고에는 엘 해스켈 체셔(L. Haskell Chesshir)로 표기하였으나 그분의 한국 이름 최수열로 통일하였으며, 그리스도대학은 교명을 강서대학교로 바꾸었으나 필자의 영문(KCU)대로 번역하였다.

A. Richardson) 형제가 학생들을 그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면 다른 시설을 찾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 학생들은 새로 마련한 상도동 건물에서 학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건물은 학교용지 매입을 완료하고, 선교사 주택을 교실과 도서관으로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사용되었습니다.

1980년경에, 나는 진주만 그리스도의 교회(하와이)에서 사경회를 인도했고, 거기에 있는 동안 한국 최초의 선교사였던 데일 리치슨(Dale Richeson) 형제에게 연락을 취해, 이전에 들었던 학교 이전 이유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리치슨 형제도 홀튼 형제가 교회가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강한 신앙적 확신이 있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나중에 홀튼 형제가 대학 운영에 반대할 뿐만 아니라, 교회 연보를 대학을 지원하는데 사용하는 것조차 옳지 않다고 믿는 '안티 그룹'에 속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수열 형제가 대학의 설립자였다는 건

해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의심받거나 언급되거나 논의된 적이 없었습니다. 이후 김진건 씨가 누군가와 이 문제를 이야기하며 설립자를 홀튼 형제로 바꾸고 싶어 한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이후 연례행사인 그리스도대학(KCC) 설립기념일에 대학 약력을 낭독하면서 홀튼(A. R. Holton) 형제를 설립자로 언급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공적인 자리에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행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1959년 또는 1960년에 재학했던 민정에 동문을 만났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지난 세월 동안 한 번이라도 홀튼 형제가 대학의 설립자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네"라고 대답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 나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그 말을 들었냐고 물었더니, 조금 전 참석했던 설립기념일 행사에서 처음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최수열 형제 외에 다른 누군가가 설립자라고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후 김진건 씨와 만나 그 문제를 논의했더니, 그는 홀튼을 설립자로 생각한다고 했으며, 그것이 대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고 동의를 구하면서 저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때, 내가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고, 명백히 사실이 아니라고 말하자 그는 몹시 화를 냈습니다.

2년 후, 후원자들을 방문하기 위해 미국에 갔을 때, 그중 한 분이 텍사스주 샌안토니오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홀튼 형제의 딸이 거기에 살고 있다는 말을 들었기에 그녀를 찾아가 아버지가 학교의 설립자였는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매우 단호하게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매우 보수적인 그리스도인으로, 교회가 대학을 운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수열 형제와 다른 사람들에게 인가받은 대학으로 나가려면 효창동 선교부지와 분리된 시설을 찾아달라고 정중하게 요청했다고 했습니다. 머지않아 이 소문은 큰 불화의 원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났을 때, 다시 미국에 가서 샌안토니오에 들러 홀튼 형제의 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녀에게 아버지

가 학교 설립자라는 소문이 점점 더 확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교회는 인가받은 대학을 감독할 수 없다고 하는 아버지의 강한 신념을 생각할 때, 그런 일은 불가능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효창동 선교부지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학교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까지 이와 관련된 많은 정보를 확인했고 최수열이 설립자라는 사실 외에 그 누구도 설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최수열 형제가 설립자이며, 홀튼 형제가 설립자가 아니라는 증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증거는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증거는 학교는 1958년 4월 19일에 설립되었고, 홀튼 형제는 3개월 후인 7월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에 홀튼 형제가 학교의 설립자라고 주장할 만한 기록도, 필요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는 교회가 교육에 관여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반대했습니다. 홀튼이 학교를 설

립하려고 했거나 설립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면 최수열 형제가 그 모든 것을 했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나는 최수열 형제의 가족 중 누구도 홀튼 형제가 설립자라고 하거나, 설립자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최수열 가족 모두 최수열이 설립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수열 형제와 함께 매일 일했던 선교사들 중 그 누구도 홀튼 형제가 설립자라고 이야기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었으며, 모두 최수열 형제가 설립자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왜 지난 세기말까지 홀튼 형제가 설립자라는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았을까요? 또한, 설립자를 바꾸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부정적인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질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학교의 소유권을 가지려는 이들이 여론을 조작하여 학교 땅을 매각함으로써 결국 금전적인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추측일 뿐이지만, 부정적인 소문들이 학교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또한 베어드(O. P. Baird) 형제는 최수열 형제처럼 16번가와 디캐터 교회에서 후원을 받았는데, 홀튼은 결코 설립자가 아니며, 최수열 형제만이 설립자라고 했습니다. 홀튼 형제가 초대 원장이었다는 점에도 의문이 있습니다. 실제로 홀튼 형제가 초대 원장이었다 할지라도 그것은 최수열 형제가 설립자인지 아닌지의 여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듯이 홀튼이 초대 원장이었다 해도 겨우 3개월만 직무를 수행한 이유도 그가 설립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998년 11월 4일에 베어드 형제가 KCU 설립에 대해 언급한 편지 인용문입니다. “이 학교는 최수열이 설립했으며, 홀튼은 학교 설립과 아무런 관련이 없었습니다. 홀튼은 학교 설립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교회가 너무 작고 약하다고 느꼈고, 소수의 일꾼으로 교회를 세우고 강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다음에야 대학을 설립할 때가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정보는 홀튼 부인이 저에게 주신 것입니

다.” (저자: 이 편지의 사본을 요청하시는 분들께 기꺼이 제공할 것입니다. 또한, 저는 베어드 형제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정직하고 윤리적인 사람이었다는 점을 덧붙이고 싶습니다.)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할 때는 어느 때보다 신중해야 합니다. 진실한 기록이든지, 거짓된 기록이든지 읽을 때마다 또 다른 진실 혹은 또 다른 거짓이 됩니다. 그런 즉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직 진실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요한계시록 21장 8절과 22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영혼이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과장되거나 왜곡된 진실은 가치가 없습니다. 모든 역사가는 그들의 기록이 정확할 때는 마땅히 칭찬을 받아야 하고, 현재와 미래에 발견될 거짓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과 공개적인 수치를 당해야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거짓 기록이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민수기 32:23)고 말씀합니다.

사필귀정(事必歸正)! 시간은 모든 것을 말해 줍니다. 진실은 영원할 것입니다!



파수리 (Malcolm E. Parsley) / 1954년 6월 한국에 왔으며, 1960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선교사로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Church of Christ Mission) 책임자이며, 서울 강남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다.

최수열과 한국선교 :

아시아 선교를 향한 전초기지로서 한국선교를 생각하다

1. 최수열의 생애와 신앙을 되짚다 (함동수)
2.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 (서재룡)
3. 최수열 한국선교의 역사적 의의는? (심상길)
4. 최수열이 개척한 그리스도의 교회 (원영희)
[강서, 화곡, 선교연합교회]



최수열의 생애와 신앙을 되짚다



대학 건축을 위한 설계도면

1. 꿈을 품다

최수열(Lewis Haskell Chesshir)은 1916년 4월 24일 멕시코 내전과 제1차 세계대전으로 세계가 전쟁에 휩싸이고, 미국의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불간섭 원칙을 내세우며 전쟁에 참전하지 않을 것을 공언하여 재선에 성공했던 해에 아칸소주 센터포인트에서 출생했다. 그는 부모 뉴먼(John Newman Chesshir)과 해리슨(Eugena Harrison)을 따라 텍사스주 터키로 이주하여 목화농장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최수열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하여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으며, 1932년에 나이트(Lelian Knight)에게 침례를 받았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는 생계를 위하여 몇 년간 영업사원으로 일하다가 복음전도자의 소명을 받고 테네시주 내슈빌에 있는 립스컴대학에 입학한다. 그때 백스터(B. B. Baxter)와 같은 명성 있는 학자들로부터 학문적으로, 신앙적으로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최수열은 내슈빌에서 에니드(Enid

Nadar Huff)를 만나 1941년 6월 결혼하였고, 7명의 자녀인 제니타, 세리, 필립, 랜달, 마크, 비키, 도날드를 낳았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그는 해군에 입대하여 샌디에이고와 진주만에서 복무하였다. 전쟁이 끝난 후, 1946-1948년 사이에 하와이 호놀룰루의 키아모쿠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설교자로 청빙되어 사역을 하게 된다. 평소 기독교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기에 그곳에서 대학을 세우려 하였으나 여건이 맞지 않아 중등교육 과정을 개설한다. 그는 하와이에서 아시아계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어 자연스럽게 아시아의 역사, 문화, 언어를 접하게 되었고, 아시아 선교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최수열은 1948년 테네시로 돌아와 립스콤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며, 그즈음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소식을 접하고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다.

2. 꿈을 키우다

최수열은 사회사업을 공부하는 것이 한국 선교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여 스칼리트대학에 진학하여 사회사업 석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또한 내슈빌의 에잇 애비뉴(Eighth Avenue)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1952-1954년 사이에 사역하였으며, 데이비슨(Davidson county) 결핵병원에서 16개월간 원목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당시로서는 사회사업이 아직 생소한 분야였지만, 선교 현장의 특성과 미래를 내다보며 미리 준비한 것은 놀라운 선견지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수열이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동석기였다. 동석기는 1940년대부터 한국에 선교사를 파송해 줄 것을 지면을 통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었고 최수열은 그의 글을 읽고 한국 선교에 대한 꿈을 키웠다.

3. 꿈을 펼치다

모금차 미국에 들어온 동석기를 만나게 된 최수열은 한국에 대한 상황을 자세히 듣게 된다. 그리고 이미 1954년 5월 14일에 한국으로 데일 리치슨(Dale Richeson) 선교사 가정을 파송한 워싱턴의 16가와 디캐처(Sixteenth & Decatur) 교회를 소개받게 된다. 최수열과 그 가족은 16가와 디캐처 그리스도의 교회의 후원으로 선교사 파송을 받고, 1954년 11월 29일 한국에 도착하게 된다. 그는 리치슨(Dale Richeson), 홀튼(A. R. Holton) 등과 함께 서울 용산구 효창선교부를 거점으로 선교사업을 펼쳐나갔다.

초기에는 한국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생필품을 배급하고 질병 극복을 위해 무료 진료를 제공하는 구제 사역이 주된 선교활동이었다. 최수열은 매일 수백 명의 사람들에게 구호식품을 제공했는데, 유엔군이 떠나면서 기부한 식량을 사거나 식량으로 가득 찬 트럭을 몰고 다녔고, 한국을 떠난 군부대에서 건축 자재를 가져다가 고아원, 과부의 집, 교회 건물을 지어주었다. 하지만 그러한 선교방식으로는 한국의 미래를 준비할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한 최수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선교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그것은 바로 한국의 미래를 책임질 젊은이들을 교육하여 자립시킬 수 있는 교육선교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교육선교에 대한 최수열의 꿈과 비전은 1958년 4월 19일에 한국 기독교학원(Korea Christian College)을 설립함으로 발아되었고, 이는 오늘날 강서대학교로 발전하게 되었다. 개교 당시 초대원장으로는 가장 연장자인 홀튼이 추대되었고, 최수열은 부원장으로 실무를 담당하였다. 학생 수는 약 19명으로 같은 해 4월 21일부터 교육을 시작했다. 교직원 회의에서 최수열은 한국이 필요로 하는 사회사업가와 가르칠 수 있는 교육자와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전도자를 양성하자고 제안했다. 1958년 7월 18일 홀튼 부부가 선교 보고차 본국에 들어가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최수열이 학교의 운영을 맡게 되었다. 최수열은 원장을 맡으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성격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다각적인 사업을 펼치게 된다. 특히 한국에서 군인으로 복무했던 이철선(William A. Richardson), 파수리(Malcolm Parsley), 알렌(Sidney Allen) 등에게 권하여 한국 선교사로 나오게 되는데 큰 영향을 끼쳤다.

4. 꿈을 이루다

최수열이 다른 선교사들과 함께 학교를 정부의 인가를 받은 대학으로 발전시키려고 했을 때, 한국으로 돌아온 홀튼이 학교의 방향성에 대하여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효창선교부를 떠나게 된다. 홀튼은 학교가 정부의 관리하에 들어가기 보다는 교회 중심으로 교역자만을 양성하기를 원했으며 최수열은 학생들에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공분야를 제공하기를 원했다. 홀튼은 교회와 교육기관은 분리되어야 한다는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기에 최수열, 이철선, 하딘(Dan Hardin)은 효창동에서 나와 영등포구 상도

동에 집을 얻어 이사를 하였고, 학교는 상도 1동 45번지 ‘직업 소년학교’ 건물을 전세로 얻어 1961년 3월 3일에 이전한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최수열은 후원교회를 테네시주 내슈빌에 소재한 오티 크릭 교회로 변경하게 된다.

최수열을 중심으로 한 선교사들은 김포공항 근처로 학교를 이전하기 위하여 학교 부지 구입과 교사 건축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 교회에 호소하였다. 이젤 장로의 노력으로 일정금액이 모금되자 1960년 3월경에 현주소에 임야 6만 4천 평을 구입하여 2층짜리 선교사 사택 4동을 건축하였으며 1961년 11월 3일 선교사 사택으로 학교를 옮기고 교실과 사택으로 사용하였다. 이어서 1963년 2월 28일에는 강당, 도서관, 사무실, 교실 등으로 사용할 약 200평 건물을 건축하였고, 여학생 기숙사도 마련하였으며 1963년 8월 28일에는 학교법인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로 인가를 받게 되었다.

당시 학교 부지는 서울이 아니라 경기도에 속한 행정구역이었으며, 작은 농촌 마을에 불과하였다(경기도 김포군 양동명 등촌리). 그러나 서울에서 공항으로 가는 도로변이었고 차후 아시아 지역의 복음화를 위한

일꾼들을 양성하기에 최적의 장소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다. 최수열은 하나의 선교부지 안에 교회, 대학, 고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부속목장, 선교사 사택이 포함된 종합적인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다. 따라서 등촌고등공민학교(현 등촌중학교)를 세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중등교육과정을 개설하였으며, 알렌과 함께 화곡 유치원을 설립하였고, 등촌교회(현 강서교회)와, 화곡교회, 동서교회(현 연합선교교회)등을 개척하였다. 또한 대학 부속 목장에서 우유를 생산하여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영양실조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신선한 우유를 공급하여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잉여분은 판매하여 대학의 재정적 자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처음에는 대학 캠퍼스 남쪽에 목장을 만들었으나 주변 지역이 도시화되면서 과주시 광탄면 방축리에 46,000여평 부지를 마련하고 옮기게 되었다. 목장에서 생산한 우유는 당시 한국인의 열악한 식생활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결핵 퇴치에도 일조했으며, 한국의 낙농업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최수열이 한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한 지 70년이 지난 현재 한국에는 120여 개의 그리스도의 교회

들이 각 지역에서 모임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기독교대학을 시작한 지 66년이 지난 지금, 강서대학교에는 약 2,200여 명의 학생들이 10개 분야의 전공학과에 등록하여 공부를 하고 있다. 그중에는 아시아권에서 온 다수의 외국인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다. 적어도 최수열 선교사의 꿈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듯하다.

5. 꿈을 맡기다

최수열은 교사 건축과 학교 운영비를 위하여 여러 차례 미국 전역을 순회하면서 모금 활동을 하였으나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자 학교 운영은 다른 선교사들에게 맡기고 1972년부터 1975년까지 모금 활동에만 전념한다. 이때 그리스도의 교회의 대표적인 신문 크리스천 크로니클 편집인이 되어 한국 선교활동과 대학 소식을 적극 알린다. 그 후 한국으로 돌아와 대학 운영과 선교활동에 매진하던 중 1987년 본인의 건강 문제와 아내의 심장 질환으로 더 이상 선교사역을 지속할 수 없게 되자 33년 동안의 한국 선교를 접고 귀국하게 된다. 그의 말년은 외롭고 소박하였다. 한적한 작은 도시의 방 두 칸짜리 집에서 얼마 안 되는 연금으로 궁핍하게 살면서도 품위를 잃지 않았

고 의연하게 자신을 지켰다. 그리고 마침내 2003년 7월 22일 88세를 일기로 보르도 병원(Bordeaux Hospital)에서 별세하였다. 최수열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에게는 유산을 상속하지 않았고 조의금 전액을 대학 장학금으로 기탁하였다. 그의 장례식 행장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었다. “최수열은 기독교 선교사, 교육가, 전도자, 박애자, 선전자, 그리고 훌륭한 가장이었다.”

그가 자주 인용하던 디모데후서 2장 2절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구절은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과제가 되었다. 만일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은 그 누구의 몫이 아닌, 우리 자신의 몫이다. 꿈을 꾸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갈 6:9)

함동수 전도자 / 제주중앙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서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다



대학 부지 구획정리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Church of Christ in America)에서 우리나라에 동석기, 강명석, 리치슨(Dale Richeson)에 이어 네 번째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내한한 선교사가 있다. 그는 해스켈 체셔(Lewis Haskell Chesshir, 1916.04.24.~2003.07.22.)인데, 그의 한국 이름은 최수열(이하 최수열로 표기)이고, 미국인으로서 리치슨에 이어 두 번째로 파송된 선교사이다. 그의 선교 기간은 1차 18년(1954.11.29.~1972.10.01.), 2차 12년(1975.~1987.) 등 총 30년이다. 그는 아칸

소주(Arkansas) 센터포인트(Centerpoint)에서 뉴먼(John Newman)과 해리슨(Gene Harrison)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성장하였다. 그가 전도자로 소명 받은 시기는 고등학교 졸업 후 직장생활 하던 때인데, 소명을 깨닫는 즉시 퇴사하였고 대빗 립스컴대학(David Lipscomb Jr. College, 테네시주 내슈빌시)에 입학하여 성서를 공부하였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므로 자진 입대(해군)하게 되었고 하와이 진주만

(Pearl Harbor)에서 복무하게 되어 그 주변의 키아우모쿠교회(Keeaumoku Church of Christ)에 출석하였다.

최수열은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되던 1945년에 전역하였으며 그와 동시에 키아우모쿠교회의 초빙을 받고 전도자로 취임하여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때 하나님은 한국 선교를 준비하도록 섭리하셨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발견할 수 있다. 첫째, 기독교 대학을 설립해서 각계 각처에서 활동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것이 최수열 전도자의 평생에 품었던 꿈인 것으로 전해진다. 그는 그 꿈을 첫 번째 사역지 키아우모쿠교회를 통해 펼쳐보고자 하였으나 여건이 여의치 않아 중등교육 과정을 개설한 것으로 만족해야 했다고 한다. 둘째, 한국계 미 감리교회 목사인 자니 신(Johnny Shen)을 통해 “한국을 복음화하면 아시아가 복음화될 수 있다.”라는 말을 듣게 된 후 아시아 선교의 꿈을 가슴에 품게 되었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한 한국 선교를 준비하기 위해 교회를 사임하였다고 한다. 키아우모쿠교회 사임 후 최수열은 1948년 립스컴대학에 복학하여 남은 과정을 마쳤으며, 이어 밴더빌트대학교 스

칼리트대학원(Scaritt College, Vanderbilt University)에서 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 석사과정도 공부하였다.

최수열 전도자는 위 두 가지 과정과 겪은 경험, 그리고 준비하는 과정으로 인해 한국 선교사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에 접근하였는데, 그것은 선교기금 모금을 하고 있던 첫 번째 선교사 동석기 전도자를 만나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때 최수열은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인해 그의 가슴은 아시아를 향한 한국 선교의 열정으로 뜨거워진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어려운 환경으로 미국인 선교사의 체계적인 선교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워싱턴 D.C. 16가와 디캐터교회(The 16th & Decatur Church of Christ, 이하 워싱턴교회로 표기)에서 한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파송할 선교사도 찾을 것이라는 소식이었다. 동석기가 전해준 고무적인 소식에 최수열은 지체하지 않고 워싱턴교회를 방문하였고, 장로들을 만나 선교사로서의 자신의 꿈과 계획을 전하면서 한국에 자신을 파송해 줄 것과 선교 후원 교회가 되어달라고 요청한다. 이렇게 최수열의 선교에 대한 열정을 확인한 워싱턴교회 장로들

은 최수열을 한국 선교사로 파송하기로 하고 결정한다.

워싱턴교회의 파송을 받은 최수열 선교사는 1954년 10월 15일 워싱턴주 에버렛(Everett) 항에서 일본 요코하마(横浜)행 배를 타고 한국을 향해 출발하였고, 11월 29일 서울에 도착한다. 이어 그는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였는데, 그 사역은 바로 대학을 세워 양성한 기독교 지도자(전도자,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통해 한국과 아시아를 복음화하겠다는 선교의 청사진을 펼쳐가는 것이었다. 그렇다면 최수열이 설립하고자 했던 대학은 과연 어떤 대학이었을까? 신학대학(Theology College)이었을까? 아니면 기독교 대학(Christian College)이었을까? 그가 한국 선교를 계획하면서 워싱턴교회의 동의를 얻어 설립하고자 했던 대학은 신학대학이 아닌 기독교 대학이었음을 그가 워싱턴교회에 보낸 선교 편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선교 현장에 있는 최수열 형제가 편지하기를 이달 안에 한국기독교 대학(Korea Christian College KCC, 현 강서대학교)을 설립할 것이라는 선교 보고를 하였다.”

최수열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정리하면, 그가 선교사로 한국에 파송 받아 온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데, 그것은 직접 선교 방법인 교회 중심 선교가 아닌 간접 선교 방법인 교육 선교(educational mission)였으며, 그 교육 선교는 바로 대학 설립 즉 학원 선교였다. 그리고 그가 설립하고자 했던 대학은 전도자만 양성하는 신학교육 기관인 신학대학이 아니라 기독교 지도자(전도자와 그리스도인 사역자)를 양성하는 기독교 대학이었다. 드디어 최수열의 기독교 대학 설립의 꿈은 내한 4년째인 1958년 4월 19일, 1956년에 내수동교회에서 시작했던 야간 성경공부 모임과 리치슨 선교사와 홀튼 선교사가 운영 중인 영어 성경모임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기독교 학원(Korea Christian institute, 일명 한국기독교 대학)을 설립하기에 이른다. 이렇게 두 학원의 학생들을 중심으로 설립된 한국기독교 학원은 성서학과, 사회사업학과, 기독교 교육학과를 둔 순수한 기독교 대학의 시작이었다.

무엇보다 최수열 선교사의 꿈은 성서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전도자로 양성하고, 사회사업학과와 기독교 교육학과에 지원하는 학생들은 기독교 지도자 즉 그리스

도인 사역자(성경 교사)로 양성하여 각계각처에서 선교사 역할을 통한 복음 전도의 사역자로 활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수열은 학교설립 얼마 후 시련을 겪게되는데 홀튼과 선교방식을 놓고 갈등을 겪는다. 홀튼은 교회개척과 확장을 주장한다. 반면에, 최수열은 기독교대학에서 젊은 일꾼을 훈련시켜서 그들이 선교를 담당케 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그래도 최수열은 포기하지 않았고 기도하며 상도동에 임시 캠퍼스를 임대하여 선교부에서 이사하였으며 자신만의 선교 방법을 펼쳐나갈 결심을 하였다. 그리고 그는 후원교회 선정과 더불어 등촌동(현 화곡동) 시대를 열기 위한 캠퍼스 조성(대지 매입과 건물 건축)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선교비를 모금하러 미국 길에 오른다.

이때 최수열 선교사는 오테크릭교회(Otter Creek Church of Christ, 테네시주)로부터 선교 후원 교회가 되어준다는 약속과 함께 한국기독교 대학 캠퍼스 조성을 위해 적극 후원하겠다는 약속에 고무된다. 이어 최수열은 미국 전역에 있는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모금 활동에 심혈을 기울였다. 당시 모금 활동의 일화에 대하여 기준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을 남겼다. “형제교회들에 한국 선교의 중요성과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독교 대학 설립의 필요성을 호소한다. 간이식당에서 햄버거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홀로 수만 마일, 수많은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눈물로 간청하는 호소에 500여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감동받고 지원하게 된다. 때로는 모금 활동이 원활하지 못해 낙심하기도 하였지만, 어린이들의 1달러 헌금과 과부의 두 랍돈이 그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한국 선교를 멈추지 않는 원동력이 되었다.” 이러한 노력 그리고 최수열의 열정과 헌신으로 인해 현 화곡동 부지에 캠퍼스가 아름답게 조성되었고, 문교부로부터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신학교(Korea Christian College KCC, 4년제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로 인가를 얻으므로 그의 꿈은 열매를 맺었다.

서재룡 전도자 / 세종으뜸 그리스도의 교회



최수열 한국선교의 역사적 의의는?



혈벗은 어린이의 손을 잡다

1954년 11월 29일에 최수열 선교사가 한국에 입국했을 때는 6·25 전쟁 정전 후 1년여가 지난 시점이라 이 나라의 사회 환경은 전쟁의 후유증과 배고픔으로 모두가 힘든

때였다. 바로 올해가 최수열 선교사의 한국 선교를 시작한 지 7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다.

나는 최수열 선교사를 깊이 알지 못한

다. 1981년에 그리스도신학대학에 입학하여 최수열 선교사를 몇 번에 걸쳐서 바라본 것과 모교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최수열 선교사가 소천하시기 얼마 전에 대학을 방문하셨을 때 만났던 것이 전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만남과 더 나아가 모교인 대학에서 신학부 교수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나’에게 큰 영향을 주었기에 이 글을 쓸 수가 있다. 내가 정신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을 때, 자연스럽게 학교의 설립자와 정신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최수열 선교사와 그 가족이 대학과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헌신과 정신을 알게 되면서 그와 그 가족에게 ‘빛진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최수열 선교사가 가장 활발하게 사역하던 시절에는 그와의 만남이 거의 없었기에 ‘최수열 선교사의 한국선교 70주년의 역사적 의의’에 대한 제목은 내게는 너무 거창하고 버거운 주제가 맞다. 그러나 1997년부터 교수로 재직하기 시작하면서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대학의 설립 이념과 목적에 대한 혼돈을 겪으면서, 내가 왜 그리스도의 교회 학원에서 교수 생활을 하며, 1981년부

터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로 살아오고 있는가에 질문하게 되었을 때, 최수열 선교사의 삶과 행적을 알게 되면서 도전과 용기가 되었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최수열 선교사께서 말년에 대학을 방문했을 때의 추억과 그 가족을 만나고, 자연스럽게 대학을 설립한 최수열 선교사의 선교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나아가 그의 사역 관련 글들을 읽으면서 최수열 선교사와 그 가족의 헌신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다. 그에 대하여 아는 것이 많지는 않으나 내가 경험하고 만난 최수열 선교사에 대하여 두 가지 많은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다.

1. 1세기의 사도행전을 20세기에 온몸으로 재현한 최수열

이번 학기에는 학부 과정에서 ‘사도행전’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초대교회의 뜨거운 선교 열정을 닮고 재현하려는 차원에서 사도행전의 28장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부흥과 열정을 다시금 소망하는 많은 목회자들과 교회들은 ‘사도행전 29장’을 이어서 쓰자고 제안한다.

최수열 선교사도 한국에서 사역할 때, 대학에서 사도행전 과목을 즐겨 강의하였

다. 그는 사도행전 과목을 강의로 끝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온몸으로 평생 실천한 사람이다. 특히 학교 부지 매입과 건물을 세우는 거대한 프로젝트를 위해서 미국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수천 불에서 수만 불을 현금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는 은사를 발휘하였다. 1960~70년대의 미국 그리스도의 교회는 매우 헌신적인 시기였지만, 그리스도의 교회 수가 그리 많지 않고, 전쟁으로 인하여 피폐해진 한국에 학교를 세우는 거대한 프로젝트에 현금을 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최수열은 한국 선교, 특히 대학 설립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미국의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다. 그는 비전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 실천하는 산 증인이다.

2. 한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선교사, 최수열

그는 20세기 초인 1916년에 미국의 시골인 알카소주 센터포인트에서 출생하여, 텍사스 터키에서 지내면서 어린 시절에 미국

경제 대공황의 아픔을 겪었다. 그 이후에 테네시주의 립스콤 대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해군에 복무한 후에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교회 사역을 하였다.

최수열이 살아온 여기까지의 인생 여정을 보면, 미국의 경제적 대공황의 배고픔과 전쟁을 겪은 30살의 나이는 교회사역을 통해서 편안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국 선교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분야가 사회사업 분야라고 생각하고 스칼리트 대학교에서 사회사업학을 공부하였다. 사회복지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후에, 원호병원에서 원목으로 활동하면서, 운명처럼 동석기 전도자를 만나게 되고 한국 선교의 꿈을 갖게 된다.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수열 선교사.

사도행전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도전을 주는 관점은 삶과 사역을 ‘선교적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이다. 편안하게 안주할 수도 있는데, 한국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의 이야기를 듣고서 흘러 지나가는 말로 들은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선교적 시선’을 듣고 바라보게 된 실천가 최수열 선교사.

워싱턴의 디케처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 선교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디케처 교회의 후원에 대한 동의를 얻어서 어린 자녀를 포함한 가족 모두가 1954년 10월 15일 워싱턴 주에서 배로 출발하여 일본을 거쳐서 11월 29일 한국에 들어오게 된 의지의 사람 최수열 선교사.

그 전에 이미 리처슨 선교사 부부가 한국에 들어와서 선교사역을 하고 있었지만,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장기적인 거주를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사로서는 독보적인 존재인 최수열 선교사.

1954년에 한국에 입국하여 고아 등을 돌보는 사역을 하다가, 그 한계를 인지하고 교육 사업의 필요성을 확신하고 교육기관, 그것도 주변 사람들이 무모하다고 여긴 대학을 설립하겠다는 비전을 품은 뜻심의 사람 최수열 선교사.

처음에 아시아 전역을 품고 대학의 이름을 Universal Christian College로 하려 했던 그의 비전을 그가 소천한 지 21년이 지나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다시금 생각해 본다. 온 열방을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 양성의 비전을 가지고 그가 세운 학교에서 현재 500여 명의 아시아권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1958년에 ‘한국기독교학원’으로 개교한 이래 66년이 지나면서 여러 우여곡절이 있는 시점에서 최수열 선교사가 사도행전을 사랑했고 사도행전을 삶으로 증명 한 그의 ‘선교적 시선’이 현실로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최수열 선교사는 20세기의 경제 대공황과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대공황의 배고픔과 전쟁의 비참함을 겪었으나 상처로 남지 않고, 오히려 전쟁의 후유증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한국 땅에 대한 선교의 비전으로 삶을 승화시켰다. 그는 우여곡절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대학을 설립하면서, 1세기의 사도행전 비전은 20세기에도 여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증거로 보여주었다. 최수열 선교사의 사도행전의 선교적 시선의 삶과 신앙과 헌신은 탈 기독교와 탈 교회의 격랑 속에서 방향을 잃고 난파 위기에 처한 현대의 한국 교회에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나침반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심상길 교수 / 강서대학교 신학과

최수열이 개척한 그리스도의 교회 (강서, 화곡, 선교연합교회)



구원의 침례를 베풀다

최수열 선교사는 1954년 11월 한국에 도착하여 한국과 아시아를 복음화시켜야 되겠다는 원대한 꿈을 안고 자신의 집과 처가의 도움을 받아 모든 것을 팔아 선교비를 만들었으며, 미국의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선교비를 지원해 주었다.

1958년에 선교 동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디모데후서 2장 2절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교훈으로 대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셨다.

그의 “그리스도 신학대학교 설립자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남긴 말씀을 새겨 보고

자 한다. “나의 가슴은 항상 그리스도 신학 대학교와 함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 성서가 가르치는 참된 진리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엮어 가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진리의 말씀인 성서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키는 어떤 교리나 주장도 젊은이들에게 가르쳐서는 안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나의 제자가 되리라”**(요 8:31) 하신 말씀을 행한다면 그리스도 신학대학교는 복을 받을 것입니다.”(2003년 4월 15일 오전 10시 18분, Lewis Haskell Chesshir). 그 후 최수열 설립자는 4개월 만에(8월 4일) 별세하여 마지막 메시지가 되었다. 이상은 KCU 뉴스의 글을 요약한 내용이다. 이 지면에서는 최수열 선교사가 교회 개척 사역에 도움을 준 교회들을 소개한다.

1.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

(서울 강서구 등촌동 산 42)

1961년 7월, 최수열 선교사가 등촌동 산 58번지에 천막을 세우고 7명의 한국 교인들과 첫 예배를 드림으로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1962년 1월, 등촌동 산 57번지로 예배 장소를 옮겼다. 다음 해인 1963년 2월 예배당 건축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4월 76평의 예배당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1월 8일 건축을 완공하고 헌당예배를 드렸다. 현재의 예배당이 당시에 건축된 예배당이다.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대 담임은 최수열 선교사이며, 2대는 1962년 7월 김득환, 김형찬, 신상만 전도자가 공동으로 목회를 하였다. 김재환, 고길상, 김광수, 박재원, 김재환, 박진한, 김송차, 심희선 전도자를 거쳐 현재는 유흥춘 전도자가 사역하고 있다.

2. 화곡 그리스도의 교회 역사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268)

1965년 서울시와 대한주택공사는 포화 상태가 된 서울의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 화곡동 지역을 한강 이남 주택단지로 책정하고 신도시로 개발한다. 개발 지역 안에 학교법인의 일부 부지가 포함되어 수용되자, 최수열 선교사는 현금으로 받지 않고 대체 용지를 요구한다. 서울시와 절충 끝에 유치원 용지로 책정된 현 화곡교회 부지 845평과 환지한다. 최수열 선교사는 대학에서 지리적으로 가까운 신흥도시임을 감안하여 교회 개척과 함께 유아 교육을 계획하고, 그의 사위인 알랜 선교사와 동역한다. 두 분의 선교사는 목장 사역을 후원하던 미국 캠벨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자신들의 교회 개척과 유아 교육의 비전을 전하고, 한지 과정에서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과 건물 신축 재정을 요청한다. 캠벨교회는 두 분의 선교 비전에 흔쾌히 승낙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한다. 최수열 선교사는 교회 개척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건물을 건축하기까지 예배를 드릴 장소와 그에 따른 역할을 할 형제로, 통역과 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김창순 형제를 선발한다.

김창순 형제는 화곡동 국민주택 144호를 전세로 얻어 가정주택으로 쓰면서 예배당을 마련할 때까지 예배처소로 활용키로 작

정하고, 기준서 형제와 교회 개척을 시작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최수열 선교사와 시드니 알랜 선교사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1967년 1월 1일 주일 밤에 첫 예배를 드린다. 첫 개척 예배에는 형제 4명(김창순, 기준서, 임준섭, 임춘성)과 자매 4명(김정례, 이시우, 황국희, 박은복), 그리고 선교사 4명(시드니 알랜, 빌 램시, 데이비드 굴스비, 넬슨) 등 12명이 참석한다.

안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목회하던 신성종 형제를 전도자로 청빙한다. 화곡교회는 신성종 전도자가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기준서 전도자가 제2대 담임으로 취임하여 1974년 9월 30일까지 목회한다. 1974년 10월 첫 주일에 김재환 전도자를 제3대 전도자를 청빙한다. 그 후로 제4대 임봉수, 제5대 강순혁, 제6대 기준서, 제7대 전창선 등이 담임 목회자로 섬겼으며, 제8대 임성택, 현재는 제9대 임진철 목사가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있다.

3. 선교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동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최수열 선교사 부부와 임수지, 원영희, 철도청 공무원 1명이 최수열 선교사 사택에서 시작했다. 처음 시작할 때 최수열 선교사는 필자를 불러 교

회를 시작할 것을 권유했다. 그 당시 최수열 선교사는 “나는 서양인이고 당신(원영희)은 동양인이기에 동서 그리스도의 교회(East west Church of Christ)라고 부르자.”고 제안하여 동서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으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다. 동양인과 서양인이 만나 교회를 세운 것이다.

최수열 선교사는 아시아에 선교하기를 원했다. 그때부터 동서 그리스도의 교회는 아시아 선교를 하게 되었다. 2002년-2015까지 필리핀 선교를 통해 한 가정 한 교회 세우기 운동을 펼치면서 13년 동안 50여 교회 건축, 재건축 사역을 하였다. 바기오에 있는 필리핀 신학교 학생들에게 매년 10명씩 장학금을 주어 일꾼들을 세워 나갔다. 졸업생들 중에는 교수로 목회자로 선교사로 파송되어 주의 일을 하고 있다.

2016년 교회 이름 동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선교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명했다. 선교 연합 그리스도의 교회는 2016-현재까지 미얀마 선교를 하고 있다. 분기별로 미얀마를 방문하여 선교하고 있다. 2016년 1차로 시작한 선교가 지난달 2024년 9월에는 제30차 미얀마 선교를 했다. 주요 사역은 미얀마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사역을 했다. 2016년 처음 세운 교회는 양곤

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인 도라에서 시작되었다. 이곳은 15세 이상은 95퍼센트가 전자로 살인자, 알콜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인신매매범 등이 살고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백 년 동안 교회가 없던 지역이다. 이곳에 양곤 선교연합교회를 세워 이 지역에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곳에 갓찬 선교 연합교회와 가정교회를 세워 어둠을 밝히고 있다. 사랑의 쌀 나눔, 어린이 장학금, 집짓기, 우물 파기, 도로 만들기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하고 있다. 현재는 양곤, 갓찬, 경일로카, 도순, 샬롬교회 등 다섯 교회와 가정교회 세 곳을 섬기고 있다 현재 400여 명의 성도들을 섬기고 있으며, 목회자 사례비와 교회 사역비를 후원하고 있다.

첨언 : 필자는 최수열 선교사 댁에서 5년 동안을 같이 살았는데, 그때 육성으로 들려 주신 말씀은 미국에서 선교비를 받아 놓어 촌 및 미자립교회 수십군데를 후원했다고 들었다.

성산동 그리스도의 교회가 개척할 때에는 미국교회에서 모금하여 상환조건으로 교회 부지 구입 비용 725,976원을 빌려주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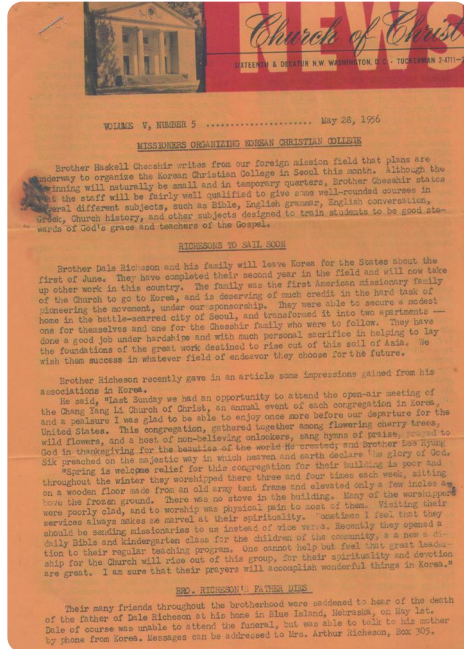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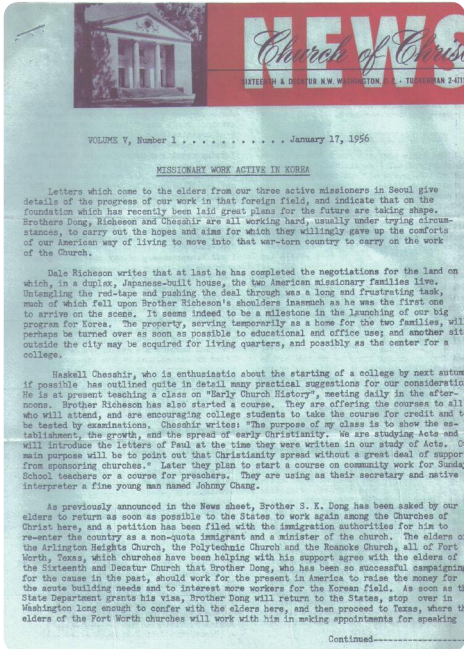
원영희 목사 / 선교연합 그리스도의 교회

**최수열과 기독교 교육 정신 :
학교설립을 통해 복음의 지평 확대를 꿈꾸다**

1. 강서대학교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은? (기준서)
2. 최수열이 남긴 유산과 우리의 과제는 (전인수)
3. 그리스도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의 순기능적 관계(임성택)
4.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하용수)



강서대학교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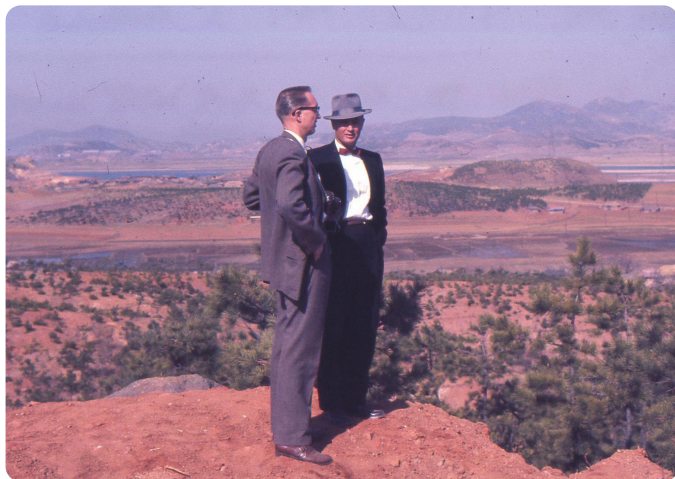


16기와 다케쳐 그리스도의 교회 소식지에 실린 우리 대학 설립역사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딤후 2:2)

우리 대학의 창학정신이 담긴 교훈(motto)이다. 최수열(Lewis Haskell Chesshir) 설립자가 기독교 대학을 세우면서 대학 설립 이유와 교육목표를 명시한 간결한 성구다. 그 안에는 기독교 교육의 최상위 목표와 핵심 가치가 담겨있다. 최수열 설립자가 기독교

교육의 큰 뜻을 품고 선택한 교훈은, 우리 대학이 지향해야 할 불변의 교육목표로 설립자의 창학정신과 교육목적대로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신실한 크리스천 리더를 육성하는 것이다. 쇠락한 교회공동체에게 복음의 열정과 새로운 희망으로 변화와 쇄신을 견인할 수 있는 참신한 리더를 키워내야 하며,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과 모본으로 겸손하게 세상을 섬기는 크리스천 리더를 길러내야 하는 것이 시대적 요구다. 이 과제는



대학 캠퍼스를 구상하는 최수열 선교사와 댄 하딘 선교사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기독교 교육으로, 우리 대학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이다.

기독교 대학 설립

최수열 선교사는 전쟁의 상흔과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1954년 추운 겨울에 이 땅에 첫발을 디뎠다. 대일 리치슨 선교사와 함께 한국선교센터를 마련하고 본격적으로 선교사역을 전개하였다. 전쟁 후에, 한국 사회는 경제적 빈곤과 낙후된 의료 시스템이 가장 큰 난제로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였다. 최수열 선교사는 복음전파와 함께, 가난한 자에게 먹고 입을 것을 공급하는 구제 사역과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의료사역을 병행하였다. 그러나 전쟁으로 폐허가 된 가난한 나라에서 한 끼니를 해결해주면

다음 끼니를 준비해야 하는 구호 활동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끝없이 퍼주기식 선교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게 되면서 보다 효율적인 선교 방법을 찾는다.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자립 의지를 고취하기 위해서라도 물고기를 주기보다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효율적인 선교 방법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장기적인 선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젊은 일꾼을 양육하여 한국의 미래를 책임지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

최수열 선교사는 전로부터 구상했던 기독교대학 설립을 구체화하고 「16가와 디케처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선교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한다. 후원

교회는 기독교대학 설립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자세히 검토한 후에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대학 설립의 로드맵이 구체화된다. 2년여 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 1958년에 대학을 세우고 학교 이름을 한국기독교대학(Korea Christian College)로 정한다. 교명이 뜻하는 대로 일반대학(Leberal Art College)이 아니라 기독교대학(Christian College)으로 창학정신과 교육목표가 무엇인지를 담았다. 기독교 대학은 교육의 근본을 성서에 두고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사람을 키우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교육철학이다. 이는 「설립자 선언문」과 「창립 이사 성명서」에서 명료하게 설명되었고, 이 같은 창학정신을 계승한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 학칙에 명시하고 있다.

「참빛」에 “대학의 과업”이라는 주제의 글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우리 대학은 교회와 사회를 위한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한국은 옛날부터 가르치는 교사들이 많이 있었지만, 교회와 사회를 섬길 신실한 기독교 지도자를 배출하는 데에는 게을리하였다. 우리 대학의 설립 목적은 한국 사람들이 하나

님께서 그들에게 부여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탁월한 지도력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 대학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 그리고 교육의 방향과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명료하게 설명한다.

최수열 설립자의 기독교 교육관

최수열 설립자는 그 당시에 다른 대학처럼 강의실만 짓고 교육을 상품화하는 영혼 없는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촌을 세워 신앙과 학문과 노동을 함께 엮는 이상적인 기독교 교육을 꿈꿨다. 현재의 대학 캠퍼스를 포함하여 공항로까지의 대지를 매입하여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연결되는 교육 마을을 계획하였다. 대학의 재정 자립을 위해서는 부속 목장과 농장을 세워 수익금으로 대학 운영의 토대로 삼고, 학생들에게는 일할 기회를 제공하여 노동의 가치와 재정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의 교육 방식은 교실과 노동 현장이 하나로 연결되어 노동의 가치를 터득하고 학생들이 자립하는 이상적인 기독교 대학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다.

최수열은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교훈으로 정하고, 실천 방안으로 영성, 지성, 인성의 교육을 추구하였다. 교육목적을 이루기

September 4, 1996

Chairman Chun Chang Sun
President Lee Bong Hoon
Korea Christian College
San 204, Hwangok 6-dong
Kangseo-Ku, Seoul 157-702

Dear Chairman Chun and President Lee,

More than 30 years ago six missionaries who became part of the founding board for Korea Christian College - Haskell Chesshir, Dan Hardin, Bill Richardson, Malcolm Parsley, Bill Ramsay and Sid Allen, drew up the following resolution which is given in part:

STATEMENT OF PURPOSE AND NATURE OF KOREA CHRISTIAN COLLEGE

"Be it resolved that the prospects of the Lord's work are so great and so unlimited in Korea at the present time that we all believe everything possible should be done to expedite this work without delay. We all agree that the sound and solid foundation to the permanent spread of the gospel must be teaching faithful men of any country to teach others. We have learned by experiences of our own group as well as experiences of other religious groups that the proper way to accomplish this is through training men and women. Even with limited funds and facilities, we have proved in Korea that this training will work by the fine leaders that have been turned out through Korea Christian College."

"We want to emphasize that this school is not set up as a regular secular college and that our only purpose in establishing this school is to promote the work of the church and it will be a church related school. The name of this school is to be Korea Christian College and we hope and pray the government officials will give us the recognition that is needed and above all -- that all the brethren throughout the churches of Christ will understand the purpose and function so that they can freely support this vitally important phase of church work without any reservation. This school... is very, very necessary in order that (the missionaries) can do a far greater work for the Lord."

In this original statement there are at least four important points:

1. We all agreed that the sound and solid foundation to the permanent spread of the gospel must be teaching faithful men in any country to teach others.
2. The school was not set up as a regular secular college.

Page 2, September 4, 1996

3. Our only purpose in establishing the school was to promote the work of the church and it was to be a church related school.
4. Above all -- we wanted all the brethren throughout the churches of Christ to understand the purpose and function so that they could freely support this vitally important phase of church work without any reservation.

With this statement of purpose there are some selected articles from some of the early Korean Reporters that show how these goals were reflected in those articles. I would like you to pay particular attention to Bill Richardson's Address in the January-February 1968 issue and a recent letter from Dan Hardin, both former presidents of KCC.

It's often good to reflect on where we've been so that we can see clearly on where we're going. Our hope is that our goals will be the same as yours and we can work together in harmony.

It is imperative, as we have just read, "that all brethren throughout the churches of Christ will understand the purpose and function (of Korea Christian College) so that they can freely support this vitally important phase of church work without any reservation."

With Christian love,

J. Haskell Chesshir
L. Haskell Chesshir

William A. Richardson
William A. Richardson

William R. Ramsay
William R. Ramsay

Daniel C. Hardin
Daniel C. Hardin

Malcolm E. Parsley
Malcolm E. Parsley

Sidney N. Allen
Sidney N. Allen

Enclosures: Copies of articles from Korean Reporters: October 1953, December 1965, March-April 1966, May-June 1966, September-October 1966, January-February 1968, January-February 1972, November-December 1972, January-February 1973, May-June 1974, September-October 1974, January-February 1975, March-April 1975, and a special brochure, 1970.

Enclosure 2: Letter from Daniel C. Hardin, August 31, 1996

Copies to: All KCC Board Members and KCEF.

학교법인 창립이사 성명서(최수열, 이철선, 빌 램시, 댄 하딘, 파수리, 알렌 선교사)

위해 신앙, 학문, 노동의 3대 요소를 중요하게 여겼으며, 초기의 학생들은 이런 교육관에 따라서 실천적 교육을 받았다. 매일 드리는 채플과 새벽예배를 통한 신앙생활, 강의실에서 다양한 강좌를 통한 학문의 성숙, 목장과 농장에서 근로를 통한 노동의 가치를 터득하였다. 우리 대학이 추구하였던 신앙, 학문, 노동을 통한 전인적 기독교 교육은 독특한 교육방식으로, 셋은 삼각 변의 한 변(邊)으로 모두 소중한 교육의 한 축이다. 이는 피라미드 원리로 4각형의 토대에 측면은 3각형을 이루며, 각 측면이 한 정점에서 만나 방추형을 이룬다. 피라미드 맨 위, 정점에서 물을 부으면 전체에 골고루 물이 퍼져

나가는 원리다. 이처럼 대학에서 충성된 젊은이에게 기독교적 가치 교육을 가르치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 나가게 된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진 후에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는 교회 확장의 원리와 같다. 이것이 설립자가 추구한 기독교 교육 방식이고 궁극적인 교육목표다.

창학정신과 교육목표

최수열 설립자가 대학을 세우면서 제정한 교훈 안에는 설립자의 창학정신과 교육목표가 고스란히 담겼다. 대학을 세우면서 왜, 무엇 때문에 기독교 대학을 설립하려는

지에 대한 대답을 성서에서 찾았다. 그의 교육관은 철저하게 성서에 바탕을 두었으며, 기독교 교육의 근본은 성서이다. 인간은 육체적, 지적, 영적 존재이므로 성서를 통한 바른 교육만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교육관을 갖고 있었다. 교육방식은 충성된 복음의 증인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하는 피라미드식이다. 이를 통하여 그가 추구하였던 교육목표는 교회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정직하고 신실한 크리스천 리더를 키우는 것이다.

「설립자 대학 창립 선언문」에는 대학의 창학정신과 교육목표가 무엇인지를 간결하게 설명한다. “우리 대학은 신실한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는 교육 기관으로 설립하였다. 신약성서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견고케 하고 새로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최우선적인 과제다. 가르침의 형태와 모형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성서에서 말하는 것은 말하고 침묵하는 것은 침묵하는 것이다. 우리 대학은 이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신약성서의 모본과 가르침에 따라 세워졌다”라고 명시하였다. 대학 설립에 동참하였던 다섯 명의 선교사들이 작성한 「창립 이사 성명서」에도 “우

리 대학은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세운 대학으로서 교회를 성장시키며, 복음전파를 위해 신실한 일꾼을 양성하여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데 설립 목적이 있다”라고 같은 내용이 담겼다. 학교법인 정관과 대학학칙 제1장 제1조에도 우리 대학은 「그리스도의 교회 정신과 교육이념으로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를 양성」 하는 것이라고 교육목표와 존재 이유를 명시하고 있다. 제1장 제1조는 학교법인과 대학이 존속하는 한, 불변적 문구로서 영원히 바꿀 수 없는 부동의 선언문이다. 그 안에는 설립 주체가 누구이며 대학의 창학정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함축하고 있다.

부연하여 설명하면, 우리 대학의 창학정신은 성서 말씀을 바탕으로 한 기독교대학으로서 신앙과 학문을 통하여 영성, 지성, 인성을 겸비한 일꾼을 양육하여 교회지도자와 정직하고 성실한 사회인이 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대학의 창학정신과 교육목표는 대학이 존재하는 한, 어떤 교육 권력이라도 변개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를 갖는다.

기독교 대학의 역할과 사명

우리 대학은 짧지 않은 창학의 나이테를

돌렸다. 나이답게 연륜에 걸맞은 교육 공동체로서 기독교 대학이 되어야 한다. 설립자의 창학정신을 올곧게 계승하는 속에 신앙교육의 영적 강화, 인격교육의 내적 강화, 전문교육의 질적 강화 등으로 기독교 대학다운 모습을 굳게 견지(堅持)해야 한다.

또한, 그리스도의 교회에 의해 세워진 그리스도의 교회 대학으로서, 그리스도의 교회와 원활하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기독교 대학으로서, 또렷한 색깔과 확고한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추구하고 지키는 신앙적 가치와 성서적 교리를 세우는 일에 반듯한 역할을 해야 하며, 대학이 가지고 있는 인적 자원과 행정적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교회가 필요로 하는 선교와 교육, 교리와 신학에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정기적인 신앙 강좌를 통한 성서적 교리의 견고성 유지, 평생 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성서 교육, 기독교 교육 강좌를 통한 교회학교 교사 양성, 선교 훈련을 통한 선교사 교육 등으로 교회를 섬기는 역할을 해야만 할 것이다.

비록 양적으로 작더라도 시대적 유행과 흐름에 동화하지 않고, 기독교 교육의 원칙과 기준을 지켜 대학 구성원과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 그리고 높은 자긍심을 갖게 해야 한다. 또한, 설립자의 창학정신을 계승하는 속에 기독교적 가치 교육과 복음의 진리를 구현하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목표에 도달해야 한다. 이리 할 때 기독교 대학으로서 존재하는 이유가 설명될 수 있으며, 선망받는 좋은 기독교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본 글은 필자가 쓴 “KCU의 설립 이념과 기독교 교육의 가치(참빛 통권 371호(제50권 1호)”의 일부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기준서 / 참빛 발행인

최수열이 남긴 유산과 우리의 과제는



최수열 선교사 장례식, 2003년 7월 22일

그리스도의 교회 미국 선교사들의 한국 선교 70주년을 맞는 올해, 최수열이 남긴 유산 중 내가 최우선으로 꼽고 싶은 것은 한국을 복음화해야 한다는 깊은 책임의식과 선교 열정이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 기독교는 급격한 수적 감소를 경험하고 있고, 거의 모든 신학대학은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은 한국 전쟁 직후

한국에 발을 디뎠던 최수열 선교사는 전혀 예상치 못했던 미래가 아닐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는 20세기 안에 한국을 복음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온갖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오늘날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할 유산이 복음에 대한 책임감과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유산 : 한국에 대한 깊은 책임감과 열정

최수열이 한국선교를 꿈꾸기 시작한 때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다. 그는 전쟁이 끝나자 하와이의 호놀룰루(Honolulu)에 있는 키와모쿠 가(街) 그리스도의 교회(Keeaumoku Street Church of Christ)에서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사역하였다. 최수열이 한국 선교사로 들어오게 되는 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동석기(董錫琪) 전도자였다. 최수열은 1946년 “교회는 일본과 필리핀,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있는 우리를 돕기 위해 누군가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까?”라는 동석기의 글을 읽고 9년 동안 선교를 준비했다.

최수열은 미국 워싱턴교회의 후원으로 드디어 한국에 가는 기회를 얻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선교에 대한 그의 마음은 이러했다. “우리 가족은 한국선교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반세기 동안 일본의 압제 아래 고난을 겪었던 이 나라에서 그 필요는 매우 커 보였다. 우리는 한국인들이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한 전쟁의 상처와 한국 전쟁

으로 인한 혈육의 상처를 기억한다. 기도하도록 광야로 그리스도를 내몰았던 성령님께서, 바울을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 인도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워싱턴의 16가 디케이터교회의 감독하에서 위대하고 도전적인 사역을 받아들이도록 나를 재촉하셨다.” 또한 그는 한국으로 먼저 떠난 데일 리치슨(Dale Richeson)의 편지에 크게 고무되었다. “(리치슨은) 우리가 그곳에서 일을 계획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향해 날짜를 앞당기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너무나 큰 필요가 있어서 사람들은 세상의 위로에 절망하고 지금 마음의 평화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는 소망으로 그들에게 이 마음의 평화를 줄 수 있습니다.”

최수열은 이 세대에 한국을 복음화하길 원했고, 그것이 성취되리라 믿었다. 그런 낙관적 믿음이 한국 사역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래서 최수열은 “이 세대에 세계를 그리스도에게 이끌겠다는 비전을 가진 프로모터이다.”라는 평가를 받았고, 20세기 다윗이라고 불렸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20세기 다윗에게는 너무 큰 일이나 너무 어려운 장애물은 없다.”

그를 후원했던 미국교회의 장로들은 한국 선교의 성과를 보며 “최수열의 비전은 위대합니다. 한국과 세계는 이 세대에 복음화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최수열은 비전이 컸다. 성산동 그리스도의 교회와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다. 최수열은 20평 규모의 교회를 개척하겠다는 공삼렬 목사에게 100평 이상 정도 되는 규모로 해야 한다며 더 큰 비전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교회 개척에 필요한 자금을 미국교회에 호소하여 빌려주었다. 그 기금은 그리스도의 교회 차관(Church of Christ Loan Fund)으로서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어 교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이 상환되면 다른 교회를 설립하도록 돕는 것이었다. 당시 성산동교회가 최수열 선교사로부터 받은 금액은 725,976원이었다. 이 돈으로 막 구획정리가 끝난 134평의 땅을 살 수 있었다.

한국선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최수열의 고생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1964년 3월호 Korean Reporter를 보면 일부 미국교회 성도들이 한국선교보다는 다른 곳을 지원하려 하거나, 선교 지원을 중단하고 싶어했던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성도들이라고

왜 힘들지 않았겠는가? 최수열은 이들에게 한국선교의 열매를 보여주면서, 인내하면 더 좋은 결과가 맺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는 1959년부터 1960년까지 5-10만 마일을 운전하며 한국에 있는 약 60에이커의 땅을 사고, 선교사 집을 짓고, 평생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다졌습니다. 하지만 후원을 그만두면 다른 곳에서 지원금을 모으는데 많은 시간과 돈이 듭니다. … 모든 선교 프로그램은 오랜 세월의 사역입니다. 새로운 사역을 지원하기 위해 후원을 중단하기 전에 신중하고, 기도하면서 사역의 필요성을 고려해 주십시오.”

최수열은 한국선교를 한국인에 대한 ‘사랑’ 때문에 감당했다. 1964년 7월호 Korean Reporter를 보자. “이러한 (선교) 동기 부여는 쉽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장 어렵고 보람 없는 사랑의 노동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포괄할 만큼 큰 사랑만이 사람이 그런 엄청난 책임을 맡도록 자극할 수 있습니다. 최수열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에서 여러 달을 보내며 한국에서의 주님의 일을 위해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1963년 3월에 저(다니엘 C. 하딘)는 그가 LA에 있는 사위의 아파트 바닥

에 누워서 극심한 현기증과 피로로 앓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과 3년 전만 해도 그는 탈진할 때까지 무자비하게 자신을 몰고 갔고, 테네시 중부 지역에서 기금을 모으는 동안 이 사역을 위해 목소리를 거의 망가뜨릴 뻔했습니다.”

과제 : 우리도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지금 우리는 최수열이 닦아놓은 발판 위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막대한 사명이 있다.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최수열이 위탁한 복음을 다시 다음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를 다시 후속 세대에게 전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다. 히브리서에 언급된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는 신앙의 이

어달리기를 연상시킨다. “우리 앞에 놓인 달음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히 12:1) 아담 이후 믿음의 계주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까지 이어졌다. 그리고 사도들의 복음은 지중해 유럽과 소아시아의 교부들에게 전해졌고, 중세 사막의 수도자들과 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을 거쳐 미국의 선교사들에게 전해졌다. 그리고 최수열과 같은 미국 선교사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했다. 이 믿음의 계주는 우리를 거쳐 후속 세대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는 그날까지 끊 없이 이어져야 한다. 최수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유산은 한국을 복음화하고자 했던 책임감과 선교 열정이다. 그리고 최수열이 전한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다.

전인수 교수 / 강서대학교 신학과



그리스도의 교회와 기독교대학의 순기능적 관계



최수열 선교사와 이흥식 전도자

1. 한국 대학들, 과거의 공적과 미래의 사명 사이에서의 딜레마

우리나라에서 대학이 국가 발전에 기여한 공로와 그 역할에 비추어, 대학의 현실적 위기는 사회의 불안 거리가 되고 있다. 우리 사회의 최대 난제로 부상한 저출산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왔고, 이로 인하여 학령인구는 2040년에는 28만 명까지 떨어져, 4년제 대학의 28%가, 2년제 대학의 61%가 사라질 전망이라는 것이 수치상의 현실이다.

이처럼 우리 대학의 미래 전망이 녹록하지 않지만, 여전히 미래를 향한 노력에서 대학

의 역할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그 무게가 더해지고 역할이 중요해질 것을 감안하여, 모두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위기를 극복하고, 오롯이 우골탑의 역할에서 진정한 상아탑으로 미래를 건인하는 중요한 기관으로 재정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어느 나라든지 나라의 미래는 여전히 대학에 달려있고, 인적 자원밖에 없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또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급격하게 변화된 교육환경, 즉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넘어가면서 중간단계를 거치는 조정기간 없이 갑작스러운 온라인 수업방식이

정착된 것은 전통적 대학의 캠퍼스 개념을 바꾸면서 시공의 간격을 좁혔고, 세계 대학들이 서로 얹히고설키는 글로벌한 경쟁적 교육여건이 조성되었다. 여기에 기독교 대학들은 또 다른 하나의 고충이 있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작금의 비판적 인식변화와 선교환경의 악화로 인해 급격하게 감소된 교세로 인해 더 이상 기독교대학의 정체성을 지켜가기 힘들고, 학생 모집조차 어려운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는 것이다. 지금 거의 대부분의 신학대학의 신학전공 계열이 지원자 부족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대학교도 자유로울 수 없음은 당연하다. 뿐만 아니라 대형 교단들의 교세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같은 조건에서의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 지난날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 발전에 KCU(그리스도신학대학에서 강서대학에 이르기까지)가 끼친 공로는 부정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더 큰 책무를 강요받을 대학의 미래를 생각하면, 이제 모두가 이 딜레마를 품고 함께 고민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2. 기독교 대학으로서 강서대학교, 신학부와 일반학부의 관계성

대학은 다른 교육기관들보다 유독 설립 정신을 중요시한다. 그만큼 대학설립에는 많은 자금과 인력, 그리고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대학 설립의 의미는 단순한 학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대학을 힘들여 세우는 것은 반드시 그 대학을 세워야만 하는 필연적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이 소명 의식을 가진 이들이 모든 것을 다하여 세운 그 건학이념을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부른다. 정체성은 대학설립 이유이기에 당연히 존중받아야 하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의 모든 자원과 구성은 이 설립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편성되어야 한다.

대학의 법적 주인은 학교법인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대학의 주인은 건학이념, 곧 정체성이다. 대학의 건학이념을 연구하고 가르치기 위해 교수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그 대학의 교수가 되기 전에 대학이 요구하는 교육의 목적, 곧 건학이념을 이해하고 동의해야 한다. 건학이념을 배우고 실천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학생들이다. 그런 면에서 학생들은 비록 입학 당시에는 그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고, 또 자신의 생각과 배치되더라도 이를 빌미로 대학의 설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주장을 삼가야 한다.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와 교수 그리고 학생들의 수업과 교육의 현장을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하기 위해 직원이 존재한다. 학교법인인 대학의 건학이념과 재산을 지키는 법적 책임자로서 대학을 유지 경영하는 것이 최우선 책무이다. 어떤 경우에도 이 구조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것이 교조적이고 원론적일 수 있고, 액면 그대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이것의 경계를 함부로 넘어서려는 시도는 불가하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대학으로서 강서대학교 신학부(신학전공 및 신학대학원)의 역할과 가치는 중요하다. 정체성을 고집하는 이러한 주장이 일견 교조적 고립주의로 몰릴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렇지만 신학부는 강서대학교의 모태학과로서 건학이념 그 자체를 생태적으로 함유한 대학의 핵심이다. 다른 학부도 이를 인정해야 한다. 대학과 학교법인은 신학부를 통해 대학의 정체성의 유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나아가 학교의 건학이념과 목표를 지켜갈 정신적 지주 학과로서 자리매김하도록 도와야 한다.

그렇지만 동시에 신학부가 다른 학부의 발전과 확장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 대학의 건학이념 자체가 각

전공이 해당 분야의 복음 전도자 양성이라는 공통적 교육목표를 가지고 있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책임져야 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기 때문이다. 강서대학교는 온전히 목회자만을 배출하기 위한 전통적 신학대학의 개념보다는 모든 전공자들을 복음 전도자로 배출하려는 그야말로 기독교 대학이다. 그러므로 신학부와 일반학부는 서로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 신학부는 대학 핵심 학부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일반학부는 다양한 전공의 주력 학부로서 자리매김해야 해야 한다.

3. 신학부와 일반학부의 순기능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학부의 입장에서 신학부가 불편할 수 있다. 이미 학생 수와 교수 분포에서 신학부의 영향력은 과거와 같지 않고, 수치상으로 드러나는 각종 의미 있는 지표 역시 일반학부를 따를 수 없음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어떤 사안이 돌출될 때마다 대학의 정체성이라는 명분으로 일반학부에 가해지는 각종 규제나 요구로부터 일반학부는 자유롭고자 하는 의사를 감추지 않았다. 아마 이런 현상은 앞으로 더 노골적이고도 구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러나 이런 현상을 책임자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서로 노력하여 해법을 찾아야지 갈등의 원인이 되게 해서는 안된다. 신학부가 일반학부의 주인행세를 하려고, 일반학부는 그런 신학부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 하는 모습은 불쌍사나운 것이다. 신학부는 대학설립부터 지금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핵심 학부라 자부할 수 있는 실력과 도량을 갖추어야 한다. 반면 일반학부는 주력 학부로서 대학의 영향력을 각 전공 분야로 확대시켜 그 분야의 복음 전도자를 배출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면서 신학부와 협력해야 한다. 더불어 일반학부는 각 전공의 모태가 된 신학부와 그동안 대학을 지키며 발전에 헌신한 신학부 선배들에 대한 존중을 보여야 한다.

4. 신학부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일반학부의 순기능을 위해 필요한 요인들

강서대학교의 핵심에 신학부가 있고, 그 연장선상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 확장 전면에는 주력의 일반학부가 있다. 따라서 신학부와 그리스도의 교회와 일반학부가 이룬 삼각 구조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 위치에 서는 기울어진

관계가 되면 안 된다. 이 삼각 구조가 결맹할 수 있는 지점은 ‘건학이념’, 곧 각 전공별로 복음 전도자를 배출한다는 대학교의 정체성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끊임없이 강서대학교로부터 전문 목회자는 물론 일반학부에서 배출된 전공 분야의 복음 전도자들과 함께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교회 환원운동을 지속해야 한다. 나아가 최초 ‘그리스도신학대학’을 세우고 이를 기반으로 한반도 서쪽의 아시아 나라들을 복음으로 공략하려고 했던 선교사들의 서진(西進)의 꿈을 실현해야 한다. 이것이 강서대학교가 설립 모태로부터 꿈꾼 궁극적 목표들이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의 교회와 강서대학교는 분리될 수 없다. 또 이를 분리시키려는 시도조차도 단호히 배격해야 하며, 오히려 서로 협력하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고 실천해야 한다. 신학부와 일반학부, 각자의 형태는 달리하고 있어도 그 내면의 정신과 목적은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여해야 한다. 누구도 이것을 부정하거나 잊으면 안된다.

임성택 목사 /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



최수열 선교사와 제 1,2회 졸업생

우리 대학의 설립 이념은 성경 말씀에 기초한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양성에 있다. 그러나 대학 설립 이후 대학으로서의 존재적 가치와 위상에 치우쳐 많은 대학들이 갖는 일반적 모형을 따라 생존을 위해 힘써왔다고 할 수 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적자생존의 위기 속에 몰린 한국 사회의

대학교육 구조는 정의롭지 못한 방식의 생존을 부채질하였다.

오늘날 대학의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다가왔지만, 여전히 서로의 자리에서 위기를 논하기에 점점을 찾아가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과 대학 당

국자들은 ‘재정위기’를 가장 우선순위에 둔다. 그래서 재정확충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갈 것인지를 고민한다. 등록금의 인상과 수익사업의 창출은 계속된 논의의 주제로 남는다.

교육부는 강도 높은 신자유주의적 대학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다. 최근 추진하는 글로컬(global) 사업은 5년간 1000억 원씩, 비수도권 10개 대학을 선정해 선별 지원하는 대학지원 사업이지만, 명분은-지방대를 살리겠다는 것- 그럴듯하지만, 속내는 산학협력을 중심으로 대학을 기업 생산의 하위체제로 만들며, 크고 경쟁력 있는 대학만 살리자는데 있다.

반면 그리스도의 교회의 현장에 있는 목회자로서 대학의 위기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념과 믿음의 가치가 대학과 교회의 현실 속에서 위축되어져 가는 것이다. 급기야는 작금의 대학이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대학 생존경쟁에 내몰려 우리만이 갖는 신앙적 정체성은 상실되고 그에 따른 변화와 개혁 또한 지지부진하다.

무엇보다 신학과와 교목실의 역할과 비중이 막중함에도 현실은 척박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대학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협력하여 이러한 실태를 풀어나가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소망해 본다. 이번에 참빛이 기획한 주제가 대학의 설립자인 최수열 선교사의 한국 선교 70년을 맞이하여 대학의 내일을 그리스도의 교회의 토양 안에서 고민하고 내일을 열어가는 작은 시초가 되기를 무엇보다 소망한다.

필자는 이 난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그것은 ‘신학과’를 ‘성서학과’로 전환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을 위한 대학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놓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신학과에 대한 혁신을 갖지 아니하고서는 이를 실현시켜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3가지의 유의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 대학의 그리스도의 교회적 신앙의 이념과 고취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제시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그간 우리의 신학과는 다른 여타의 신학과와 크게 분별되지 않는 커리큘럼과 방식으로 운영되어져 왔다. 그래서 신학과를 졸업하였어도 별다른 특색이나 특징적인 신앙의 고취를 이루어내기가 어려웠다. 결국 이는 사역자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외양적 틀을 갖추었으되 다른 여타의 교파 교회와 구별되지 않는 사역을 전개해 나가는 모순을 낳았다. 이런 측면에서 성서학과로의 전환은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차별적인 신앙의 길들을 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둘째,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들이 새롭게 교회적 토양을 바꾸어가는 상생적 기회가 되기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래 성서 중심의 교회이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단순히 문자주의적 성서 읽기에 매몰되어 있었고 실질적으로 목회자와 다르게 교인들에게 바른 성서 읽기와 해석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가지고 사역해 오지 못하였다. 이는 대학에서 바른 성서 해석 방법론이나 성서에 대한 체계적 이해나 방식을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대학에서 이러한 성서 중심의 커리큘럼과 실천적 방안이 제시된다면 교회사역에 엄청난 시너지 역할을 낳을 것이라 본다.

세 번째, 한국교회를 향한 환원운동의 실질적인 신앙의 토대를 세워가는 일이 될 것이다. 한국의 많은 신학대학들이 갖는 어려

움과 우리 대학 신학과가 갖는 어려움이 일면 동일한 부분도 있고 상충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직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듯하다.

많은 교회들이 대학의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는 장로교와 감리교에서도 신학과를 통한 교회 지도자 양성이 많은 부분 어려워지는 현실로 볼 때, 그간 교회 현실의 척박함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의 신학과가 학생들의 수급의 책임을 교회로 돌려왔던 일들이 이제는 모두 무용한 일이 되어버렸다. 그러니 이제라도 근본적으로 대학과 교회가 협력하여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기회로 삼으면 좋겠다.

먼저, 대학의 신학과를 빠른 시간 안에 성서학과로 바꾸어가는 일련의 협의체를 제안한다. 이는 교수와 교계 목회자들 간의 협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이 이론과 실천의 통일을 이루어가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성서대학교가 성서학과를 통해 이러한 사역의 길들을 찾아 애쓰는 것으로 안다. 상당 부분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요소가 많다. 그러나 최근 성서대학교의 성서학과와 커리큘럼을 살펴보니 여전히 신학과와 비슷한 교수와 교과목으로 구

성되어 있기에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성서 중심의 커리큘럼 등을 개발하여 성서적 신앙을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는 두 가지의 큰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신학과 수급의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또 하나는 지금이라도 우리 대학의 본래의 신앙 정신과 지도자 양성의 목적을 이루려는 행위이다.

첫째 이야기는 고등학교 졸업자가 주된 신학과 지원자의 대상을 넘어서 한국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대학의 성서학과를 지원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의미이다. 한마디로 목회자만을 양성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 신앙에 기초한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을 한국교회에 세워가는 일이다. 교단을 초월하여 누구나 바른 성서적 지식과 영성에 기초하여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의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고 대학의 교수들과 목회자들이 협력하여 이러한 실제적인 신앙교육 또는 성서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는 그리스도의 교회의 신앙적 강점

인 바른 성경적 지식에 토대한 목회자 양성과 교회의 지원 토대를 구축하는 일이다. 지속적으로 대학은 교계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바른 성경적 지식을 위한 해석학, 연구 방법론, 성경읽기, 성경묵상 등을 렉처쉽이라는 형태로 마련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의 성경적 토양의 깊은 우물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목회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일이라면, 당연히 그 바탕에는 성경 말씀에 철저하게 기초되어야 한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적 현실은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은 채로 대학을 졸업하고 목회를 해나가고 현장에서는 더더욱 다른 교회 사역을 하느라 정작 우리 신앙과 목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 토대가 되는 성경 말씀을 등한시한다.

결론적으로 대학은 생존을 넘어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 양성이라는 대의를 놓치지 않기를 바란다. 대학의 설립자 최수열 선교사 한국선교 70주년을 맞이하여 그 본래의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지금이라도 선명하게 증거되기를 바란다.

하용수 목사 / 춘천 그리스도의 교회

특집 | 최수열 선교사 한국선교 70주년

인간 최수열 선교사를 말하다

1. 짚신 - 벼밭(논)과 목화밭 (필립 체서)
2. KCU에 대한 나의 이해 (마크 체서)
3. 쉬임 없는 열정적인 모금운동가 최수열 (조준제)
4. 최수열, 뜨거운 가슴을 가진 복음 선교사 (이은일)



짚신-벼밭(논)과 목화밭



한복 입은 최수열 선교사 부부

최수열 선교사는 고아, 과부, 노숙자, 배고픈 이들, 죽어가는 피난민들에게 친구이자 구원자였습니다. 그는 감옥과 병원을 방문하여 사람들을 위로했고, 참혹한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망가진 한국의 백성들에게 여러 방면으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이자 남편이었으며,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

이자 인류를 위한 봉사자였습니다. 그는 어디를 가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1954년, 아버지는 아내와 어린 네 자녀를 데리고 프랑스 화물선을 타고, 태평양과 일본해를 건넜고, 도쿄를 거쳐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는 2003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버지는 1916년 미국 아칸소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존 뉴먼 체셔와 유진 체셔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칸소에 거주하던 체셔 가족은 농업에 종사했으며 교회도 개척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아기였을 때 아칸소의 기후는 그의 건강에 적합하지 않았습다. 그래서 의사는 더 건조한 지역으로의 이주를 권유했습니다. 이에 체셔 가족은 아버지가 겨우 세살이었을 때 아칸소의 산악지대에 있던 집과 친지를 떠나 텍사스 북쪽의 매우 건조한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아버지는 텍사스에서 열심히 일하는 농가의 소년으로 자라며 노새와 말을 이용해 목화밭과 채소밭을 갈았습니다. 여가 시간에는 책을 읽으며 언젠가 세계를 여행하겠다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여건으로 인하여 두 명의 자매와 한 명의 형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존 뉴먼 체셔 가족은 1930년부터 1936년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힘든 시대 중 하나인 ‘모래폭풍(Dust Bowl)’ 시기를 겪었습니다. 모래폭풍은 농경지를 황폐화시켰고, 1929년부터 1941년까지 이어진 대공황은 미국의 모든 가정을 유린하여 많은 사람들이 농장을 떠나 도시로 이주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시기는 기근과 질병, 절망으로 인한 자살로 최소 700만 명이 생을 마감했던 재난과 비통의 시기였습니다. 체셔 가족은 아버지가 16세가 될 때까지 텍사스의 작은 농장에서 힘겹게 생존했으며, 1932년경 아버지는 가족 농장을 떠나 일자리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미래가 있는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었고, 가슴 깊이 열망하던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영업사원이 되었고, 성경과 가족사진을 판매하면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아버지는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나기 위해 데이비드 립스콧 대학에서 교육을 받으려고 준비하던 중에 에니드 나다라 허프를 만나게 되어 두 사람은 1941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해 진주만이 폭격을 당하며 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고, 미 해군에 소속된 아버지는 하와이 진주만으로 가는 배를 타게 됨으로 그의 인생이 영원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주만에서 아버지는 의무대와 함께 부상자와 병든 이들을 돌보며 죽어가는 이들을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필리핀과 세계 각지의 전략 기지에 배치되어 있던 해군 병사들

은 전쟁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하여 배와 비행기를 타고 진주만에 왔습니다.

해군으로 복무 중이던 아버지는 진주만의 키아우모쿠 스트리트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군대에서 만난 친구들과 함께 첫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버지는 설교의 은사와 영업사원을 하면서 얻은 경험을 활용해 인근 지역에 있는 집들을 방문하였으며 사람들을 교회에 초청하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해군 임무 외에도 교회사역과 사회봉사, 하와이에 속한 섬들을 오가며 했던 전도 활동은 아버지에게 있어 전임사역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세 살이었던 제네타와 함께 진주만에 도착했을 때, 가족은 기쁨의 재회를 했습니다. 자매인 웨리는 1946년 호놀룰루에서 태어났고, 첫 아들 필립은 3년 후인, 체셔 가족이 1949년에 테네시 주, 내슈빌로 돌아갔을 때 태어났습니다.

해군 복무를 마친 후에도 아버지는 민간인 신분으로 호놀룰루 키아우모쿠 스트리트 교회에 “전도자”이자 사회복지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와이에 머무는 동안 기독교 교육을 할 수 있는 캠퍼스와 고등교육기관

을 설립하고자 하는 비전과 꿈을 키워갔습니다. 그의 계획은 하와이 현지인들과 섬에 있는 많은 이민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섬김에 대해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키아우모쿠 스트리트 교회에서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교육하여 그들이 또 다른 이들을 가르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그의 계획은 빠르게 진전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온 세상을 복음화 하는 것이었습니다.

곧 아버지는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면서, 이처럼 큰 사업을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더 많은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가족과 함께 테네시주 내슈빌로 돌아가 하와이에 학교를 세우기 위하여 학업을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내슈빌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에서는 6·25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공산당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파괴적인 계획의 일환으로 한반도를 점령하려 했습니다. 3년 후, 한국전쟁으로 3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가족이 이북에서 남쪽으로 피난하며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1953년 휴전이 이루어지자마자 한국 사람들을 도우러 가자는 부름이 아버지에게 들려왔습니다. 동석기와 같이 존경받는 분들이 젊은 선교사들에게 한국에 와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전투를 멈춘 1953년에 아버지는 해외선교사로 떠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화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희망이었습니다.

미국 국민들과 미군은 전쟁으로 황폐화된 나라를 돕고 한국을 재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으로의 부름에 응답하였고 그 가족은 워싱턴 D.C.의 16번가와 디캐터 그리스도의 교회의 후원을 받아 대한민국 서울로 가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한국선교”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첫 번째 선교사로 6개월 먼저 와서 서울 효창동에 그리스도교 선교 기지를 세운 데일 리치슨의 뒤를 이어 1954년 11월에 한국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는 서울에서 선교의 문을 열었지만 그곳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효창동에 있는 우리 부지 위에 해리 홀트(Harry Holt)를 위한 1층짜리 건물을 짓기 위하여 모금을 했고, “홀트 고아원”이 우리 부지 위에 세워졌습니다. 또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와

선교사 주택, 사무실, 그리고 한국기독교학원이 그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KCI는 아버지 해스켈 체서에 의해 효창동 부지에서 설립되었고, 1958년 4월 19일 서울에 있는 보건복지부에 등록되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KCI는 KCC(Korea Christian College)로 개명하여 처음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 “교육부(문교부)”에 의해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학교의 모토는 하와이에서 정한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의 말씀과 동일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아프리카 선교사도, 하와이 선교사도 되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남한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치유하는 선교사 가족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때가 되면, 한국인들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한국에 있었습니다. 마크 해스켈 체서는 1956년에, 비키 린 체서는 1958년에 서울에

서 태어났습니다. 도널드 크레이그 체셔는 1961년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총 7명의 자녀를 낳았고, 지금은 모두 미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1958년에 19세의 한국의 피난민 소년, 존 체셔를 입양했는데, 그는 미국으로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존은 1987년 캘리포니아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한 체셔 가족은 50년대에 8세 또는 9세였던 피난민 이남열을 양육했습니다. 이남열은 2023년 테네시주 채타누가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두 자녀인 민야와 서울은 현재 테네시주에서 가족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꿈과 비전의 사람 최수열 선교사는 2003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인생역정을 마치고 평화롭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사랑이 가득한 아버지와 어머니였고, 일곱 명의 자녀, 제네타, 웨리, 필립, 랜달, 마크, 비키, 돈을 둔 체셔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인들을 섬기기 위해 미국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긴 여행을 하였고 이 땅에서 임시로 살다 갈 조국으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현재 그들은 모두 고향인 미국 땅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미래는 1954년 전쟁으로 황폐화 된 대한민국 서울 땅에서 선교사로 시작했는데, 그 곳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고 이제는 무르익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추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다섯 살이었습니다. 저는 필립이고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모두 기억합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한국의 모든 이들에게 일치와 사랑과 평화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가져다주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모두가 평화롭게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꿈꾸었고 비전을 가졌던 것처럼, 복음이 한국으로부터 세계 여러 나라로 계속해서 퍼져 나가기를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언젠가 그리스도께서 구름 속에 다시 오실 때까지! 아멘!

필립 체셔 (Phillip H. Chesshir)

최수열 선교사 큰아들

KCU에 대한 나의 이해



최수열 선교사 가족

저는 간결하게 핵심만 전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비난할 필요가 없고, 한 가족으로서 우리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일들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알고 있고, 이제 KCU의 사역과 사명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 일치가 이루어질 때가 오기를 소망합니다. 예, 더 이상 그 이름을 사용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KCU 설립은 최수열의 비전과 노력의 결과였으며, 그분이 KCU의 유일한 설립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KCU에 다른 설립자는 없었습니다. 이는 1958년 4월 19일, 서울에서 보건복지부에 공식 등록되어 문서화된 사실입니다. 당시 이름은 ‘한국기독교학원(KCI)’이었고, 이후

‘그리스도대학(KCC)’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대학교(KCU)’로 바뀌었습니다. 강력한 학문적 배경을 제공하지만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예수그리스도의 복음)”라는 사명을 가진 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꿈이었습니다.

일찍이 KCC에서 학업을 마친 졸업생들이 동문회를 조직하여 모임을 갖고 현재까지 서로 교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졸업생들은 학교의 근간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굳건히 서서 현재와 미래의 동문들이 함께 학교가 예수그리스도의 복음을 교육하고 전하는 사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학교의 초기 발전과정에 함께 했고, 직접 목격했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여, 우리가 가족은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유일한 설립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학교를 지배하고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기 위하여 역사를 왜곡했습니다.

지난 수년간, 그리고 최근 몇 주 동안 우리는 동문과 학교 이사회 구성원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과 만났습니다. 많은 동문들이 역사를 바로잡아, 학교가 그 사명을 이어갈 기회를 제공하기 원한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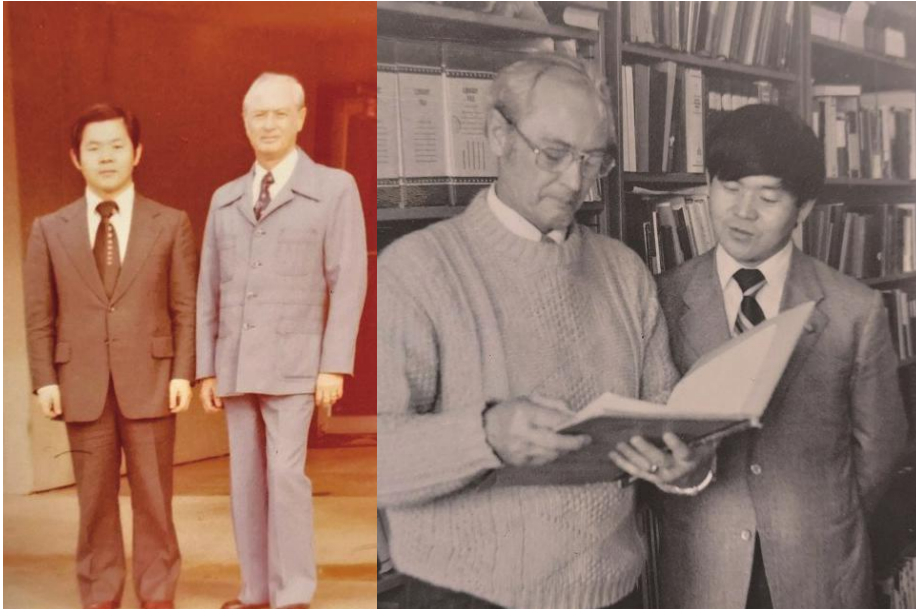
우리는 동문들이 하나 되어, KCU의 창립과 역사에 대한 진실을 회복하고, 학교의 미래 성장과 안정을 위해 힘써 주기를 바랍니다. 학교법인 이사들을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동의해야 할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최수열이 유일한 창립자라는 점입니다. 둘째로, 학교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충성된 남녀를 교육하여 다른 이들을 가르치게 하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진실들을 교육부에, 하나의 목소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위와 인도하심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1954년 우리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님은 모두 알고 계십니다. 악하고 부패하여 원래의 목적을 떠나 이득을 취하려 한 이들 위에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롱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세우시고 회복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약속하신 일입니다! 사랑과 은혜, 자비와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굳건히 서십시오.

마크 체셔(Mark Chesshir)

최수열 선교사 셋째아들

쉬임 없는 열정적인 모금운동가 최수열



최수열 선교사와 필자

이미 작고하신 지 20년이 지났지만, 최수열 선교사를 회고하니 울먹여지는 마음을 가눌 수가 없다. 최수열 선교사의 이야기는 곧 나의 지나온 삶의 큰 부분을 더듬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1970년대 초 미국 테네시주, 켄터키주, 아칸소주, 멀리는 미국 북부 미시간주까지 그분의 모금 활동 여정에 동행하면서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오

른다. 물론 최수열 선교사와 모금 활동에 함께한 것은, 그분의 기나긴 세월 속 헤아릴 수 없는 고초와 노력에 비추어보면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

1962년 KCC에 입학하여 학교 다닐 때는 최수열 선교사를 멀리서만 뵈었을 뿐이다. 1973년 미국에 취업할 기회가 있어 출국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고(故) 박현섭 전도자와

“재단법인수습위원회”로부터 중요한 부탁을 받게 되었다. 미국에 가면 최수열 선교사를 만나서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한국에 나와달라고 요청해달라는 것이다. 최수열 선교사를 만나 한국 형제들의 부탁을 전달하였더니, 이 문제는 혼자서 결정할 수 없고 가족들과 의논해야 한다고 하면서 1주일 정도 자기 집에 머물라는 것이다. 하루는 최수열 선교사가 부르더니, “만일 조형제가 나와 같이 서울에 나가서 나를 도와줄 수 있다면 나도 결심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다. 할 수 없이 나는 미국 내의 직장을 구하여 왔으며, 다시 한국으로 나가면 직장이 없다고 나의 사정을 말씀드렸다.

최수열 선교사는 선교사 자격 요건을 만들어 내슈빌 지역 교회에서 선교비를 마련하여 한국에 나가면 되지 않겠느냐고 하면서 후원교회를 소개해 주겠다고 한다. 그분의 요청에 망설이지 않을 수 없었다. 미국교회에 가서 서툰 영어로 한국 선교기금을 모금하는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그러나 고민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남들 다 하는데 나라고 못 할게 뭐 있나?” 하는 도전의식을 갖고 한국에 나가겠다고 말씀드렸다. 최수

열 선교사는 차고에 딸린 작은 공간에 내거처를 정해주었고, 우리는 곧바로 모금하기 위해 교회 방문길에 나섰다. 내슈빌시와 근교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방문하여 한국선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후원을 호소했다. 주일 저녁 예배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맞춰 교회를 방문하여 서툰 영어였지만 최선을 다했다.

내슈빌시에서 가까운 소도시들을 방문했다. 오히려 그런 교회가 내게는 편하고 친밀하게 느껴졌다. 최수열 선교사가 다른 일정이 있는 날이면 혼자서 방문했다. 그때 방문했던 교회마다 교회 장의사 뒤에 작은 봉투가 부착된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봉투를 눈여겨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봉투를 자세히 봤을 때 큰 충격을 받았다. 작은 봉투에는 “Korea Christian College Fund”라고 적혀 있었다. 교회 출석한 분들이 주머니에 잔돈이 생기면 봉투에 넣었고, 어린아이들도 어른들을 따라서 코 묻은 동전을 넣었다. 매 주일 저녁 예배 후에는 봉투를 열고 돈을 모아서 최수열 선교사 후원교회로 보낸다. 후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봉투들은 오래전부터 부착되었고, 낡고 찢어져 떨어지면 다시 만들어 붙여 놓았다.

그때 깨달은 것은 미국 형제들이 돈이 많아서 한국에까지 선교비를 보낸 것이 아니라, 작은 펀돈을 모았으며 어린아이들의 코 묻은 돈까지 아껴서 한국에 보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한국 물가가 저렴하여 대학부지를 사고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 대학 운영비와 학생들의 근로 장학금도 줄 수 있었다. 또한, 생활이 어려운 일선 목회자들에게도 매월 일정 금액의 생활비를 후원하였다.

6개월 정도 내슈빌시와 근교 여러 교회의 후원을 확보한 후에, 1974년 4월에 귀국하여 본격적으로 선교 활동을 했다. 최일선 부대를 순회하면서 군 선교에 집중했다. 나름대로 내 삶에 한 획을 그은 특수 목회 활동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하지 못하게 되었다. 재단법인과 학교법인의 잡음과 싸움은 끝이 보이질 않았고, 그 속에 휩쓸리고 싶지 않았다. 새로운 삶의 진로를 찾기 위해 후원하던 내슈빌 근교 토티스 밴드 그리스도의 교회(Totty's Bend) 초청비자를 받아 1978년 9월 말에 미국에 들어왔다.

샌프란시스코에 정착하여 있을 때인 1983년 12월쯤에, 최수열 선교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지금 샌프란시스코 지역(Bay Area)에

있는데, 주일에 새크라멘토 북쪽에 있는 오렌지빌 교회를 방문할 계획이니 함께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흔쾌히 승낙했다.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 반가웠다. 새크라멘토로 가는 중에 교회를 방문하는 목적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알렌 선교사로부터 KCC에 급히 7천 불이 필요하다고 연락이 와서 오렌지빌 교회에 부탁을 했다는 것이다. 주일에 예결산 모임이 있어서 분명히 선교헌금을 마련해 줄 것으로 낙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결산 모임이 끝난 후에 선교담당 골든(Curt Golden) 장로의 대답은 예산이 없다는 것이다. 골든 장로는 자기 지갑에서 백 불짜리 몇 장을 꺼내 최수열 선교사 손에 쥐어준다. 틀림없이 7천 불을 후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빈손이 되니 선교사의 표정은 몹시 어두웠다. 점심때가 지났는데도 식사하자는 말도 꺼내지 못하고, 그럴 기분도 나지 않았다.

둘이 맥없이 샌프란시스코로 돌아오는 80번 고속도로를 30분 정도 달렸는데, 잔뜩 흐린 날씨가 눈발을 흘날리기 시작했다. 내리는 눈의 양이 점점 많아지면서 유리창에 쌓여가고 있었다. 내리는 눈은 자꾸 쌓여가는데, 눈을 힘겹게 밀어내던 와이퍼가 작동을

멈췄다. 누구의 차를 빌렸는지 모르겠으나, 어디서 이런 고물차를 빌려 타고 오셨는가 싶어 한심한 생각이 들었다. 참으로 난감하였다. 선교사님은 오른손으로 핸들을 잡고 왼손으로는 앞 유리에 쌓여가는 눈을 힘겹게 쓸어내렸다.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럽고, 모금하는 일이 짜증스러웠다. 나는 자동차를 안전한 곳에 잠시 정차하자고 제안했다. 차가 정차한 후에 “이게 뭘니까 이런 것을 선교비 모금이라 하는지 모르겠으나, 내 눈에는 구걸 행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러면서 “이런 모금 활동에는 앞으로 저를 부르지 마세요.”라고 단호히 말했다. 전에도 이런 일을 수없이 겪었는데도 그날따라 왜 그런 망언을 했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부끄럽다. 선교사에게는 얼마나 배은망덕한 언사였는가?

나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책망의 꾸지람이 무뎌 나의 마음을 두드렸다. “자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자네 눈에는 내가 할 일이 없고, 즐거워서 이 일을 하는 줄 아는가? 참된 기독교 교육을 위한 일에 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후원해야 할 일임을 깨우치고 계속 권유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지 않으면 누가 하겠는가?” 그

분의 목소리는 약간 떨리는 듯하면서도 쟁쟁했다. 어찌나 큰 소리로 꾸짖는지 고개를 숙인 채로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아무 대꾸도 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그분의 말씀이 구구절절이 옳았고, 꾸중을 들어 마땅했다. 참으로 숭고한 삶을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한없이 존경스러웠다.

얼마의 침묵이 흐른 뒤, 다시 차로 가던 길을 달리기 시작했다. 그런데 기적같이 작동을 멈췄던 유리창 와이퍼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신기하고 놀라웠다. 쏟아지던 눈도 서서히 그치기 시작하더니 서쪽 하늘의 떼구름 사이로 석양 햇빛까지 비쳤다. 배고픈 것도, 교회에서 모금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오는 것도 잊어버렸다. 다음에 주님께서 어느 교회를 통해서 마련해 주시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이었다. 그때 최수열 선교사가 “Each day I’ll do, a golden day…” 찬송가를 선창하셨고, “I know the Lord will find a way…”를 함께 불렀다. 그러는 사이에 샌프란시스코까지 무사히 돌아왔던 기억이 새롭다.

그 후에도 여러 번 시간을 내서 최수열 선교사 모금 활동에 동반했다. 주로 미 서부

캘리포니아였는데, KCC 설립 초기인 50년대부터 70년대 초반까지는 미국 중부와 동부, 그리고 테네시가 모금의 주요 무대였다면, 그 후에는 서부 캘리포니아에서 주로 모금을 하였다. 그 이유는 산호세에 있는 캠벨교회(Campbell Church of Christ)를 후원교회로 하여 “Cows for Korea” 운동을 전개하였다. 근교에 있는 교회들을 순방하면서 모금을 하여 파주 목장을 매입하고, 홀스타인 젖소 112마리를 보냈다. 그 젖소들은 가난에 찌든 한국인들, 특히 영양실조에 걸린 어린이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 KCC 목장 사업은 최수열 선교사의 사위인 시드니 알랜 선교사가 주관했고, 데이비드 굴스비 선교사가 도왔다.

한번은 캐마리오 그리스도의 교회 장로로 농기계와 요트에 사용되는 유압기를 만드는 사업을 하는 분을 방문하였다. 장로님은 한국선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최수열 선교사를 돕던 분인데, 5천 불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였다. 지금 내게 그만한 돈이 없으니 시간을 달라고 하자, “당신은 사업가이니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릴 수 있지 않는가?”라고 독촉한다. 나는 주객이 전도된 상황을 보면서 지금도 최수열 선교사가 그분에게 했던

말이 잊히지 않는다. 최수열 선교사는 KCC를 위한 모금에는 어느 교회이든지 개인이든지 간에 어우르고 격려하며 집요하게 설득하였다. 모금하면서 주눅이 들거나 저자세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에 동참케 한다는 자부심을 갖도록 일깨워 주었다.

최수열 선교사의 KCC를 위한 모금 활동에 참여했었던 동역자로서 그분의 사명감과 스케일에 놀라고 또 많은 것을 배웠다. 그분의 마음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선교의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마케도니아 교회가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자원하여 분에 넘치도록 헌금한 것을, 사도 바울은 “은혜”라고(고후 8:1~6) 말씀하였다. 최수열 선교사도 모금 활동이라기보다 미국 교회에게 어려운 한국인들과 장래 그리스도의 교회 일꾼들을 양성하는 일에 필요한 기금을 헌금하는 것이 ‘큰 은혜’라고 그들을 설득하였다.

돌이켜 보면, 최수열 선교사와 그 가족이 한국 땅에 온 것 자체가 큰 희생이었다. 후진국 한국이란 나라, 전쟁의 포성이 멈춘 후 잿더미가 쌓인 전후의 상처가 그대로 남은 1954년 추운 겨울에, 가족을 데리고 한국 땅

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때 선교사는 부인과 함께 두 딸(Jenetta & Sherry), 다섯 살 된 큰아들(Phillip), 한 살밖에 안 된 둘째 아들(Rand)을 데리고 왔다.

한국으로 오는 길도 지금처럼 항공편이 아니라 화물선을 타고 밤낮없이 긴 여정을 향해하면서 폭풍우를 만나 모진 고생을 하였다. 한국으로 직접 올 수 없어 일본에 도착하여 한국 입국 비자를 신청한 후 6주를 기다려야 했다. 일본에서는 군용 비행기를 얻어 타고 여의도 비행장에 도착하였다. 그때가 1954년 11월 29일이었다. 아침저녁으로는 찬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매서운 추위가 시작되는 때였다. 복음 전도와 기독교 교육을 통해 한국과 아시아 대륙 전체를 복음화하겠다는 선교의 일념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 후로 미국 전역을 순회하며 모금 캠페인을 벌여 대학을 세우고 운영하기 위해 하루도 쉬 없이 오직 그 길만을 걸으셨다.

최수열 선교사가 은퇴하신 후에 그분이 사시던 애쉬랜드의 초라한 집을 방문하였다. 지난날을 회상하면서 젊었을 때 품었던 선교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미국 대륙을 누비며 살아오신 일을 이야기하던 모습이 프랭크 시네트라의 “마이 웨이” 노랫말을 떠

올리게 했다. 선교사께서 KCC를 세우고, 사회사업을 통해 한국인을 구제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 모금을 벌여온 모든 사역을 어찌 다 알겠는가? 나는 작은 조력자의 역할을 하였을 뿐이다. 내가 KCC에 들어와서 이렇게 위대한 분을 가깝게 모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은총이다. 한국 전쟁 중에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전사하신 육신의 아버지 대신에 최수열 선교사를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존경했다.

올해 5월, 램지 선교사 사은회에 참석차 아내와 함께 내슈빌을 여행했다. 사은회가 끝난 후 5일 정도 더 체류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최수열 선교사를 통해 한국선교 이야기를 듣고 돼지 저금통을 깨서 후원했던 옛 친구들을 만났다. 지금은 세월이 흘러 8, 90세 노인이 되어 지팡이와 워커에 몸을 의지한 채 제대로 걷지도 못한다. 처음에 만났을 때만 해도 젊고 혈기 왕성하여 교회 내에서 집사와 전도자로 기동 역할을 했던 분들이다. 최수열 KCC 설립자와의 옛 추억을 상기하면서 한국 교회와 대학 사정을 묻지만, 나의 대답은 궁색했다. 다만, “지금은 많이 달라졌고 대학은 종합대학교가 되었으며 많은 학생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의

우정과 후원에 고마운 마음을 표했다.

한 친구는 교회 뒤뜰에 있는 묘지로 우리 부부를 안내하더니 자기가 묻힐 묘지와 이미 주문해서 세워진 묘비를 가리킨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여기까지 오는 항공료가 비싸니 다시 오지 말고 친구가 죽으면 여기 묻힌 것을 기억해달라고 하면서, 테네시 특유의 사투리로 말하던 모습을 잊을 수가 없다. 서로 뜨겁게 포옹하고 석별의 정을 나눈 후 떠나가면서 손을 흔들 때, 아내는 하염없이 눈시울을 붉혔다.

그 옛날 저 친구들이 최수열 선교사의 한국 선교에 대한 열정과 간곡한 설득에 감동하여 후원했던 때를 떠올리면서, 오늘 한국에서 KCC 설립자와 가족의 희생에 감사하기보다는 공동 설립자로 그분의 피나는 노력과 업적을 격하시키는 작태에 한없이 서

글픔을 느낀다. 그러나 나는 믿고 확신한다. 자신들의 정치적, 교권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엄연한 역사의 진실을 왜곡하지만, 이런 모든 술책이 언젠가는 반드시 수면 위로 떠올라 명명백백하게 사실을 증명하리라는 것을. 아직도 역사의 증인들이 생존해 있고, 수많은 문서가 증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KCC에서 한국선교에 대한 꿈과 비전을 함께 일구었던 과수리와 빌 램시 선교사가 역사의 증인으로 사실을 명확하게 증언하고 있다. 그래서 세상이 KCC에 대한 모든 역사적 사실을 낱알이 알게 될 것이다.

내 삶의 한 부분을 의미 있게 수놓아 주신 최수열 선교사와 한국선교를 위한 모금 활동에 동행했던 아름다운 추억은 영원히 나의 가슴에 남아 꽃피울 것이다.



조준계 전도자 / 그리스도신학대학에 1962년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며, 미국 페퍼다인대학교(Pepperdine University)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 군인 선교사역을 하였으며, 미국에서 글렌데일 그리스도의 교회(Glendale church of Christ)를 개척하여 16년 동안 목회하였다.

최수열, 뜨거운 가슴을 가진 복음 선교사



장천 그리스도의 교회 (현 서호중앙교회)

내가 최수열 선교사님을 처음 만난 시기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집에 있을 때인 1958년이다. 그때 아버지께서 장로교회에서 목회하시던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는 무엇인가?”라는 조그만 책자를 보시고 그것을 계기로 성경을 찾아 읽기 시작하던 중 깨달음을 받아 장로교회 목회를 그만두시고 그리스도의 교회로 환원하셨다. 그래서 처음 개척교회를 시작하셨는데 그 교회가 전라남

도 영암군 서호면에 있는 서호중앙 그리스도의 교회이다.

이때 처음으로 우리 집을 방문해 주신 분이 최수열 선교사였는데 이때부터 선교사님과 우리 집과의 관계가 시작되었다. 지금 생각해도 선교사님이 우리가 사는 전라남도 영암군 서호면 엄길리까지 어떻게 오셨을지 신기하기만 하다. 그때는 교통도 불편하고 모든 환경이 열악한 시골 중에도 시골,

하루에 한 번, 저녁에 버스가 들어와 아침에 나가는 형편이었다. 내가 기억하기로는 영암읍에서 택시를 타고 오셨고 기다리게 한 택시를 다시 타고 가셨는데 어떻게 우리 집까지 오셨으며 또 서울까지 가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여행이었을 것이다.

우리 집에서 계신 짧은 시간은 우리 가족 뿐만 아니라 특별히 나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었다. 특히 지금도 내 머릿속에 깊이 남는 것은 짧은 만남 동안 아버님과 서로 성경 구절을 찾아 소통하고 가끔 내가 한 영사전을 찾아가며 서로 소통할 수 있게 도와드렸다. 돌아가실 때 택시가 대기하고 있는 마을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가 서 있는 길을 걸으며 “거룩한 천사의 음성 내 귀를 두드리네”를 선교사님은 휘파람으로, 지금은 고인이 된 여동생과 나는 함께 휘파람에 맞춰 노래를 부르며 걸었던 기억이 난다.

그 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2년에 그리스도신학대학(KCC)에 입학하였다. 그때는 교실이 없어서 빈 버스 안에서, 최수열 선교사와 램지 선교사의 지하실에서 수업을 받았다. 형편상 학업을 중단하고 군복무를 하는 동안 휴가를 나올 때면 가끔 선교사님 댁을 방문했다. 한번은 이야기를 나누다 저녁이 늦어졌고 그때 선교사님이 얼음

에 재워둔 딸기와 아이스크림을 냉동고에서 꺼내 와서 함께 먹었던 것도 기억난다.

내가 1969년에 복학했을 때, 선교사님은 오토 크릭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관계 때문에 귀국하셨다가 1975년인가 다시 한국에 나오실 때 일이다. 어느 날 우리가 살고 있던 집에 셋째 아들 마크가 달랑 가방 하나 메고 갑자기 나타났다. 어떻게 된 연유인지를 물었더니 비행기 표를 자기 것 한 장만 끊어워서 혼자 왔다는 것이다. 이틀 후엔가 큰 아들 필립이 조그만 여행 가방과 기타를 들고 나타났다. 그 후 몇 주 뒤에 선교사님이 따로 나오신 것으로 기억된다. 필립은 그 후 비자 문제로 돈을 빌려 비행기 표를 사서 일본 동경까지 출국했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온 일도 생각한다. 오토 크릭 교회와 후원 문제로 인해 자기의 집을 팔아 경비를 마련하여 한국에 다시 나왔다.

KCC는 정규대학 인가에 부정이 있다고 하여 매우 어수선한 상황이었다. 대학 인가에 관여했던 총무처장은 이미 미국에 도피해 있었고 알렌 이사장은 출국이 금지되었다. 학교와 법인은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이것이 아마 정부 수사의 시작이었다. 나도 정보부 요인과 두 번 만났다. 급기야 최수열 선교사가 학교 인가 문제로 내가 수사의 대상에 올랐다고 하시며 미국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을 하셔서 1976년 1월 급히 미국 이민 길에 올랐다. 미국 아틀란타에도 착하여 며칠 동안 미국 생활에 적응하려는 중 테네시주에 있는 게인스보로 그리스도의 교회 존슨(Bob Johnson)한테서 전화가 왔다. 일주일 후에 차를 보낼 테니 준비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미국 생활에 적응도 못한 채 얼떨결에 게인스보로에 도착하여 조그마한 시골 전화회사에 직장을 얻었다. 주로 주일 저녁과 수요일 저녁에 게인스보로교회 맥코인(Donald McCain) 장로와 주변에 있는 여러교회를 방문하였다. 그때 게인스보로교회는 최수열의 새로운 후원교회로 최수열이 한국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왔던 교회다. 그리고 존슨(Bob Johnson) 변호사는 최수열의 법률 자문을 하였고 나중에 그분이 작고하시기 전에 오테 크릭 교회를 고소할 생각까지도 고려하셨다. 그러나 교회 문제를 세상 법정에 제소하는 것이 성서적인가 하는 문제를 깊이 고민하다가 하지 않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교회를 방문하여 모금한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가를 실감하면서 최수열 선교사는 어떻게 그 많은 금액을 모금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어떨 때는 교회로부터 설교를 부탁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예배 후 장

로와 집사들 앞에서 KCC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어떤 때는 예배 후 모이기로 한 모임이 취소되어 다음을 약속하거나 아예 무산되는 경우도 있었다. 때로는 준비해 준 수표를 받아 들고 오지만 혹은 다음에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하여 늦은 밤길을 운전하며 빈손으로 돌아오셨다. 제일 섭섭할 때는 교회의 재정 형편이나 다른 선교 후원 때문에 후원을 거부당할 때였다. 이런 일들을 수도 없이 당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때는 교회문을 나서는데 나이 연로하신 할머니께서 꼬불꼬불 접어둔 \$1.00 몇 장이나 \$5.00을 손에 쥐어주실 때는 아마 선교사님의 마음도 기뻐셨을 것이다.

한번은 선교사님이 테네시주 게인스보로에 오셨는데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였다. 자동차는 낡은 폭스왜겐이었는데 4단 기어로 운전하기에는 너무나 힘든 차였다. 그 차로 캘리포니아에서 텍사스를 거쳐 그 먼 길을 일주일 만에 왔다고 자랑하시는데 캘리포니아에서 게인스보로까지 직통 거리가 3,200km가 넘는데, 그 나이에 텍사스를 경유하여 오셨다니 마음이 찡했다. 다행히 돌아가실 때는 맥코인 장로가 포드 자동차를 주셔서 얼굴에 웃음을 띄우며 편히 떠나시던 모습을 기억한다. 또 한 번은 어두움이

일찍 깔리는 어느 추운 겨울날, 저녁을 먹는데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노크 소리에 문을 열었더니 선교사님이 문밖에 서 계셨다. 안으로 모신 후 저녁은 어떻게 하셨는지 물었더니 우리 먹던 음식을 먹겠다고 하셔서 접시와 포크를 식탁 위에 더 놓고 함께 남은 한국 음식을 드셨다. 그리고는 자신이 설거지를 하시겠다고 고집하시며 설거지를 하셨다. 앉아서 좀 더 이야기를 하다가 애들 엄마는 작은 애의 침대에 같이 눕고, 선교사님은 나와 함께 같은 침대에 누워 자정이 훨씬 넘도록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이야기하던 중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오터크릭 교회가 매월 KCEF에 후원하는 돈보다 경비로 쓰는 돈이 더 많다는 것이었다. 즉 KCEF가 일을 보는 여자 비서를 고용하였는데 쓰이는 경비가 오터크릭 교회가 현금하는 돈보다 더 많아서 오히려 자기가 모금한 돈에서 충당한다는 것이었다. 아침 일찍이 식사도 거르고 가시겠다고 하기에 보

니 선교사님의 와이셔츠가 너무 더럽고 구겨져 있었다. 내 셔츠는 모두 너무 작았으나 다행히 어느 분이 선물해 준 셔츠가 너무 커서 못 입고 그냥 걸어둔 것이 있어서 드렸더니 좀 끼기는 하지만 그 옷을 입고 떠나셨다. 벗어두신 옷은 세탁하여 다음에 오셨을 때 드렸다.

그 후 최수열 선교사가 영구 귀국하여 내쉬빌 서쪽 애쉬랜드에 정착하여 계실 때 존슨(Bob Johnson) 씨와 함께 찾아뵈었다. 그때가 선교사님과 마지막 만남이었다. 그분은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를 심고 KCC를 세워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셨다. 나에게는 아버지 같은 분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분이다. 들려주신 자기의 자라던 시절, 학교 시절, 군복무 후 하와이에서 교회를 하던 시절, 모두가 나에게는 인생의 가르침이었다.



이 은일 / 그리스도신학대학에 1962년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며, 알랜 선교사와 목장 사역을 동역하였다. 미국 통신회사에서 은퇴한 후에 쿡빌과 컴벌랜드 등지에서 축구 코치와 감독을 역임하였으며, 쿡빌 노인센터 이사장(Cookeville Senior Center)으로 재직하였다.

최수열 설립자 재단

1. 최수열 설립자 재단의 설립 동기와 목적 (랜드 체서)
2. 최수열 설립자 재단의 현재와 미래 (주정철)
3. 최수열 설립자 포럼의 의의 (전신호)



최수열 설립자 재단의 설립 동기와 목적

THIS CHECK IS VOID WITHOUT A BLUE & GREEN BACKGROUND AND AN ARTIFICIAL WATERMARK PATTERN ON THE BACK - HOLD AT ANGLE TO VIEW



LIPSCOMB UNIVERSITY
Lighting the Way
NASHVILLE, TENNESSEE 37204-3951
(615) 269-1000

SUNTRUST
SunTrust Bank, Northwest Georgia
OPERATING ACCOUNT
TAX EXEMPT NO. 4-190304107-000-1
64-79
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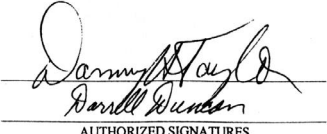
00128788

Check Date	Check Amount
03/31/04	\$14,766.60

PAY *****Fourteen Thousand Seven Hundred Sixty Six & 60/100*****

TO THE ORDER OF

Korean Christian University
c/o Rand Chesshir
1504 Banks St
South Pasadena CA 91030



AUTHORIZED SIGNATURES
This Check Void After 90 Days
SIGNATURE HAS A COLORED BACKGROUND

⑈ 128788⑈ ⑆06100790⑆ 7095000316⑈

조의금 전액을 최수열설립자장학금으로 기탁

1954년 초겨울, 한 젊은 선교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비롯된 꿈과 비전을 품고 한국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가 한국에 전하러 오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한국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에 품었던 비전은, 전쟁과 가난의 희생자였던 한국인들을 ‘빛의 사자’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벧전 2:9).

아버지의 꿈에 따르면, 한국인 선교사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을 아시아로 전파하게 될 것이고, 한국은 그 전진기지가 될 것이며, 한국인 선교사들은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70년 전 아버지가 한강에서 새 신자들에게 침례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 가운데 살도록 세상에 보내셨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기 위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가진 한국선교의 목적이었습니다.

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굶주린 이들에게 양식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자들을 입히면서,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그리스도의 일꾼들을 양성할 학교를 세우는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습니다(딤후 2:2).

「최수열설립자재단」은 70년 전 한국에서 시작된 아버지의 사역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1958년 4월 19일 이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최수열설립자재단」은 학교 설립과 관련된 실제 사건들을 역사적 사실로 기록하고 자료로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최수열설립자재단」을 세우게 된 동기와 목적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 세대가 아버지의 꿈과 비전을 생생하게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왜 그리고 어떻게 학교를 설립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우리는 학교의 목적과 사명이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6년에 아버지가 한국의 신자들이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위해, 먼저 교육을 받아

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학교를 세우기 위한 열망을 가지고 선교를 시작했음을 우리는 그의 후원교회였던 16가와 디케처교회(16th & Decatur Church of Christ)의 소식지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소식지는 "최수열 형제가 세우려던 학교에 대하여... 그 학교의 진척상황이 진행 중이었다"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하신 일을 회상하면서, 우리는 KCC(그리스도대학)가 되고, 나중에 KCU(그리스도대학교)가 된 학교를 설립한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가시기 전에, 한국 교회를 위한 비전과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교를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하와이에서 아버지의 설교를 들었던 한인교포 젊은이 조니 신(Johnny Shen)은 아버지에게 한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학교를 세워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한국에 가서 한국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파할 미국인 선교사를 요청하며 그리스도의 교회 간행물에 수많은 기사를 썼던 동석기 형제에게 격려를 받았습니다.

최수열 선교사의 헌신을 기리며 그를 존중하는 것은 명예롭고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가장 먼저, 자신의 모든 노력은 ‘당연한 봉사’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예수님만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분 없이는 우리가 모두 구원받지 못할 존재입니다. 아버지는 단지 우리 주님의 종이었을 뿐입니다.

아버지의 초기 사역 시절, 학교가 막 시작되었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는 효창동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이때 이복 출신의 한 사역자가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최수열 형제님,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에게도 성경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굶주리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이 세심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 일로 인해 아버지는 나중에 ‘한국을 위한 소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고, 그 결과 한국인들에게 소고기와 우유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다른 선교사들이 어렵게 한국에 가져온 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법인의 이사회가 소 떼와 KCC의 땅을 수백만 달러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이사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한국을 위한 소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알렌 형제, 굴스비 형제, 최수열 형제가 한국인 모두를 위해 그토록 애써 얻은 그 땅은 어디

에 있습니까?

「최수열설립자재단」은 최수열 선교사의 헌신을 기념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학교의 설립 목적과 사명을 지키기 위한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에게 보여주시고 마음속에 그리게 하신 학교입니다. 1983년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도 아버지는 “학교는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닥터 기는 “최수열 선교사가 KCU를 세운 것은 한국과 아시아 선교를 위한 기독교 대학으로 세운 것이지, 일반 대학으로 설립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KCU를 강서대학교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일반적인 교육 기관으로 만들려는 의도가 있다고 합니다. 「최수열설립자재단」은 KCU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교회 지도자를 훈련시키기 위해 설립된 기독교 대학임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KCU 법인 이사 중에 그리스도의 교회 교인이 아닌 이사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도 있는 듯합니다. 이상한 일입니다. 왜 그

들은 그리스도인 일꾼들을 양성하기 위한 기독교 대학의 법인 이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일까요?

수년에 걸쳐 KCU에 공동 창립자가 있었다는 잘못된 정보가 퍼졌습니다.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이 거짓인 이유는 일부 사람들이 대학의 운영 법규를 조작하여 사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최수열 선교사의 학교 설립을 위한 희생이나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의 다른 선교사들과 교인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최수열 선교사의 학교 이름에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한국(Korea)’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는 돈이나 직함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학교는 한국인 여러분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성하기 위해 세워졌습니다. 세속화는 연세대, 하버드, 예일 같은 대학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행복하고 만족스러울까요? 현대나 삼성과 같은 회사들이 이사회 구성을 할 때 그리스도의 교회 신자들을 강제로 선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대학의 목표는 창립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정의한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둠에 대항하십시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빛을 비추십시오. 열심을 다하여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흠치고 파괴하려고 온자들이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모두 돌이켜 우리 주님의 자비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무릎을 꿇게 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그리스도)을 계속 부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랜드 체셔(Rand Chesshir)

최수열설립자재단 이사장

최수열 설립자 재단의 현재와 미래



최수열 선교사의 노년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교회가 한국에 정착하고 뿌리를 내려 확장되어 가는 과정에서 교육은 강력한 힘과 공신력을 가진 도구일 것이다. 성경은 그리스도라는 이름에 구원의 유일한 권위를 부여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영생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천명하였다. 혹자는 해석과 역사관에 따라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나의 성서관은 사도들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순종하자는 것이고, 모두가 그래야 한다고 믿는다. 최수열 선교사는 하나님께 헌신한 분으로 한국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충성함으로 인생을 바쳤다.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순수하게 하나

님께 받은 사명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려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노력과 업적을 빼앗거나 감추려 하는 것은 양심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 외에 누구도 찬양하거나 경배하지 않는다. 하지만 바울 사도의 업적이나 베드로의 사역이 감춰지지 않듯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 헌신한 최수열 선교사의 업적도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한다.

일부 잘못된 정보를 기반으로 왜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최수열 선교사를 설립자로 인정할 것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사실에 근거한 역사 인식의 문제다. 학교설립 역사에 대하여 무시하거나, 설립역사를 알면서도 정치적 판단을 하거나, 명예에 대한 욕심으로 설립자를 부정하는 처사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러나 역사와 진실은 왜곡하거나 덮으려고 한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한 의도는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일이다. 최수열 선교사가 일생을 바쳐서 이루어놓은 성과를 자기 이익의 도구로 삼으려는 이들

에게서 학교를 지키고, 유지 발전시켜서, 한국에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더욱 부흥 발전하는데 학교의 역할과 영향력을 향상시키고, 일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더는 최수열 선교사를 조롱거리로 삼지 말고 진실을 알리고 역사를 바로 세워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더이상 설립자와 관련된 논쟁이 없길 바란다. 최수열 선교사가 태평양을 넘나들며 이루어놓은 대학의 뿌리를 무시한 채 후원금을 보내거나 기도지원을 해준 단체나 개인을 설립자라고 하는 어불성설은 설립자의 개념조차도 모르는 억지와 무지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단지 모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니 하나님 사역을 장난하듯, 자기주장을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설립자에 관한 거짓 주장은 중단되어야 한다.

대학의 이름을 강서대학교라고 변경했더라도 그리스도의 교회 대학이라는 정체성은 희석되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 정직함이고 양심적인 도리다. 최수열 설립자 재단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하여 정치적이고 계산적이라고 비판하는 분들이 여전

히 존재하지만, 필자는 물론 최수열재단 구성원 모두가 최수열 선교사의 설립 정신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와 대학의 발전을 염려할 뿐,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오히려 대학을 살리기 위해 관선이사 퇴진과 대학을 넘보는 이들과 맞서기 위해 그리스도의 교회 기관들과 협력하였고, 개인적으로 기부하였고, 집회와 언론 홍보를 통해 민선이양에 앞장서 왔다.

앞으로도 설립자재단을 이용하여 개인이나 특정 이득을 추구하거나 명예를 누려보려는 시도는 없을 것이니 오해가 없으면 좋겠다. 설립자재단으로서 대학이 정상적인 운영과 발전으로 한국에 그리스도의 교회에 기여하고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교육기관으로서 한국인의 영혼이 구원받도록 학교가 강력한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재단이 작은 기여라도 할 수 있기를 소망한다.

현실의 상황이 암담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출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면서 희망찬 미래를 향하여 한 걸음씩 전진해 나가려 한다. 현재는 최수열설립자재단의 조직

이나 재정적인 규모가 매우 열악하고 미약한 수준이지만, 적극적으로 분발하여 국내외의 관련된 구성원들을 참여시키고, 구체적인 계획과 준비를 통하여 지속적인 모금이나 후원을 통해 학교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학술회 개최나 장학생 선발 등의 사역을 실천해 나가겠다.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최수열설립자재단을 비롯한 그리스도의 교회 모든 구성원이 한마음으로 강서대학교와 그리스도의 교회의 계절을 앞당기는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정철 전도자

최수열설립자재단 한국본부장



최수열 설립자 포럼의 의의



최수열설립자재단 한국지부는 2019년 7월 8일, KC대학교에서 약 60여 명의 목회자, 교수, 후원자들이 모인 가운데 「최수열설립자재단 포럼」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최수열설립자재단 이사장 랜드 최수열(Rand Chesshir)는 누가복음 14장 10-11절 말씀을 가지고 최수열설립자재단의 목적을 “최수열 선교사의 삶과 사역을 기억하며, 그의 꿈과 비전을 여전히 지속하는 것”이라고 천명하였다. 최수열 선교사는 대학교를 통해 기독교 인재를 양성함으로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 전역에 그리스도의 교회의 복음을 실현해 갈 것을 꿈꿨다. 최수열설립자재단의 목적은 분명하다. 최수열 선교사의 선교에 대한 이와 같은 꿈을 계속해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10여 년간, 설립자에 대해 논점을 흐리면서 전체적으로 대학이 나아갈 방향과 목적을 혼드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다. 수십 년간 문제없었던 역사를 왜곡하고 학교의 근본을 흔들려는 의도가 보였다. 이런 과정에서 설립자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최수열설립자재단이 설립되었고, 2019년 7월 8일 포럼을 통해 그 목적을 분명히 천명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19년에 실시된 ‘최수열설립자재단 포럼’은 큰 의미를 가진다.

강서대학교와 학교법인은 대학의 설립자에 대해 분명한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 2,000년에 최수열 선교사가 작성하여 공증

한 내용에 보면 설립자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선언이 나온다.

“나, 최수열은 세계 선교를 위하여 신실한 젊은 청년들을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KCU를 설립하였다. 나의 최우선적 중요한 과제는 한국에서 신약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기존에 그리스도의 교회들을 강화시키고 새로이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다 …… KCU는 이와 같은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모본을 따르며, 학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배운 것을 신중하게 지켜가도록 인도하며, 인간적인 이론과 의식들이 가득한 시대에 순수한 신앙에 머물도록 지속적으로 가르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장 역동적인 사역이 될 것이다.”

2003년 4월 15일, 제45주년 개교기념식에서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였다.

“나는 1954년 11월 추운 겨울날, 한국과 아시아를 복음화시키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나의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선교비를 만들었고, 미국의 여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선교비를 지원해 주어 한국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나갔다. …… 1958년에 KCU를 설립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젊

은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였다. 나는 신실한 젊은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쳤으며, 그 결과 오늘의 대학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나의 가슴은 항상 KCU와 함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진리가 우리를 지속적으로 엮어 주리라고 믿는다.”

최수열 선교사는 참으로 뜨거운 가슴을 가졌다. 그 뜨거운 열정은 1954년에 시작되어 2003년이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지켜볼 수 있다. 이만큼 대학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시각을 가진 사람을 보았는가? 설립자를 규정할 때는 다각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그 첫째가 “대학에 대한 분명하고도 지속적인 비전을 가졌는가?” 하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 최수열 만큼 분명하고도 확실한 비전과 열정을 가진 선교사는 없었다. 그가 1958년에 효창동에 ‘한국기독교학원(Korea Christian Collage)’을 세운 이유도 분명하였다. 물론 하딘의 글과 선교 역사에 의하면 아더 홀튼과 동충모 전도자가 초기에 함께 동역하며 힘을 쓴 공로자는 맞지만, 설립자로 인정하기에는 역사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그 증거로 교회 중심의 선교를 주장하던 아더 홀튼과 기독교대학을 설

립하려는 최수열이 갈등하게 되었고, 결국 1959년에 상도동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다. 그러나 최수열은 그 기간에도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며 모금하여 화곡동에 땅을 매입하였다. 그리고 1961년, 매입한 화곡동 부지로 대학을 옮겨 그동안 밭로 뛰고 기도로 숙원하였던 대학의 미래를 위한 확실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1958년부터 1961년까지, 아니 그 이후로도 그리스도 대학을 통한 자신에게 주어진 분명한 비전을 이루기 위해 이처럼 기도하면서 밭로 뛰며 자신의 삶을 불사른 선교사가 있었는가?

다음으로 설립자를 규정한다면 재원의 투자라고 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최수열이 모금자의 역할을 하였다고 그 의미를 축소시키려고 한다.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의 독특한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당시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방식은 선교회가 조직되어 선교사를 파송하거나 개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형식이 아니었다. 선교사가 자신의 재산을 헌신하거나 또는 선교후원금을 직접 모금하려 다녔다. 강서대학교가 1958년에 설립될 당시에도 그러한 방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최수열 선교사를 단순한 모금자라고

선을 그을 수 없다. 무엇보다 최수열 자신이 2003년에 “나는 1954년 11월 추운 겨울날, 한국과 아시아를 복음화시켜야겠다는 원대한 꿈을 갖고 나의 집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선교비를 만들었고, 미국의 여러 그리스도의 교회들이 선교비를 지원해 주어 한국에 선교사로 지원하여 나갔다”고 직접 밝힌 것처럼 자신의 재산을 전부 처분하여 비전의 기초를 이룬 것이며, 이후 그리스도의 교회의 선교방식대로 미국의 교회들을 찾아다니며 모금한 재원으로 대학을 건립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설립자 규정을 위해서는 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분명한 증언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서 아더 홀튼의 딸은 자신의 아버지를 설립자로 인정한 적이 없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다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반면에 최수열의 가족들은 최수열을 보고 느낀 만큼 최수열이 대학의 설립자임에 분명한 태도를 취해 왔으며 그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2024년 4월 18일, 강서대학교 개교기념식 행사에서 아들이자 최수열설립자재단의 이사장인 랜드 체서는 이렇게 말했다.

“My father had a vision, a dream for this

school. 아버지는 이 학교에 대한 비전과 꿈이 있었습니다. To train followers of Jesus to train others about the good news that God created you for a purpose.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다는 좋은 소식을 전하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Seventy years ago my parents came to Korea. 70년 전 부모님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In 1958 my father registered this school to 'train Christian workers to train others'. 1958년 아버지는 '다른 사람을 훈련 시킬 기독교인 일꾼을 양성'하기 위해 이 학교를 등록했습니다. This school was founded for a purpose. You are founded(created) for a purpose. 이 학교는 목적을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목적을 위해 설립(창조)되었습니다. My son and I came today to commit to living our lives for God's purpose and His pleasure. 제 아들과 저는 오늘 하나님의 목적과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삶을 살기로 결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최수열 선교사의 손자가 되는 주니어 랜드도 개교기념식에서 이렇게 말했다.

"My name is Randall Lewis Chesshir. I am the grandson of Lewis Haskell Chesshir the founder of Korea Christian University. 저는 랜달 루이스 최수열입니다. 저는 KCU의 설립자인 루이스 해스켈 최수열의 손자입니다. Without my grandfather, myself and everyone present today would not be here. 할아버지가 없었다면 저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에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We are all here for a purpose: for most, it is to better your lives through education. 우리 모두는 목적을 가지고 여기에 있습니다. 대부분에게 있어서 그 목적은 교육을 통해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However, my grandfather did not found this university just for students to educate themselves. He founded this university with the intent to train disciples. 하지만 할아버지는 학생들이 스스로 교육하기 위해 이 대학을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제자를 양성하고자 이 대학을 세웠습니다. That is why my grandfather founded Korea Christian University. To make disciples. 그래서 제 할아버지는 KCU를 설립했습니다. 제자를 만들기 위해."

가족들만이 아니라 당시에 함께 선교를 했던 말콤 이 파수리, 빌 램시, 시드니 알랜, 오 피 베어드, 단 하딘도 최수열 선교사를 대학의 설립자로 분명하게 인정했다. 또한 당시 수학을 했던 동문들도 같은 증언을 했다. 2024년 4월 18일, 최수열설립자재단이 두 번째로 주관한 「최수열선교사 한국선교 70주년 기념포럼」의 제1부 환영과 인사에서 빌램지와 이은일 동문이 축하 영상

으로 최수열의 설립자를 분명히 했으며, 제 2부 ‘최수열 선교사와 한국선교 70년’이란 주제강연을 통해 파수리 선교사도 분명하게 설립자를 최수열로 인정하였다. 이후 이어진 대담 ‘최수열 선교사와의 추억’에서 대담자인 랜드 체서, 이지호, 기준서, 박병수, 황충룡도 설립자로 최수열을 인정하며 기념하였다.



최수열설립자재단은 포럼을 통해 강서대학교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 정체성은 설립자에 대한 분명한 자세에서부터 시작된다. 설립자가 가진 꿈과 비전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금번 참빛에서 발행하는 최수열 선교사 특집을 통해 강서대학교의 설립자 문제와 강서대학교가 취해야 할 신앙과 미래 방향이 더욱 분

명해지길 기대한다. 마지막 순간까지 한국과 아시아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한 복음화, 기독교 인재 양성인 제자화를 통한 복음화를 소원했던 최수열 선교사의 꿈이 계속 유지되고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전신호 / 전(前) 최수열설립자재단 사무국장

The background of the entire page is a photograph of a rustic stone wall. The wall is constructed from irregular, greyish-brown stones of various sizes, stacked together. At the base of the wall, there is a vibrant display of flowers, including white daisies, yellow chrysanthemums, orange chrysanthemums, and pink chrysanthemums. The flowers are in full bloom, adding a splash of color to the otherwise monochromatic stone wall.

영문 원고

Malcolm E. Parseley,
Phillip H. Chesshir
Rand H. Chesshir
Mark H. Chesshir

Brother Chesshir and KCU

My knowing Bro. L. Haskell Chesshir all started in June 1954 when I was sent to Suwon Air Force Base Korea by the U.S. Airforce for a thirteen-month tour of duty. I met Bro. Cheshire and family who arrived Nov. 29, 1954, for the first time with his wife Enid, daughters Jenetta, Sherry and Vicki, sons Phillip, Randy. I spent thanksgiving with them and enjoyed our first acquaintance. He told me of his purpose in his family coming to Korea and his hope in establishing a college and training every student to be first a Christian and next to be able to support himself by the education he received at the college. He said his main goal was to Biblically prepare preacher and members so they could go out and start churches and support the congregations where they attended. It sounded like a great plan to me. Shortly after this I was transferred to Pusan Air Base, so I was not able to see him or hear from him again while I was in Korea. It was until about five to six months later. that I decided to return to Korea and give my life to serving God by serving the Korean people then I left in July of 1955. I returned to the States and entered college. Then in the early part of 1958, he contacted me wanting me to stay in school and obtain a Master's Degree in Bible and return to Korea as the head of the Bible Department. I agreed to, and then it was at that time I heard he had started the Collage. When I arrived on Oct. 16, 1960,

Haskell was purchasing land at Deung Chon Dong near Kimpo Air Base, but the students immediately needed to be continuously taught, so a two-story building was leased, and we began to move in. At that time, I inquired as to why they had left the Hyo Chang Dong facilities. I was told independently by

Bro. Cheshire, Bro. Hardin and Bro. A.R. Holton, who was the director of the mission there, that Bro. Holton felt it doctrinally wrong for the Church to be in the business of running a college and therefore if Cheshir, Dan Hardin and Bro. William (Bill) A. Richardson wanted to take the students in that direction they would need to find facilities elsewhere. The students then began to study at the new Sang Do Dong building. This building was utilized until the land sale was completed and mission housing could be utilized for classrooms and library.

In about 1980 I held a lectureship for the Pearl Harbor Church of Christ and while there I contacted Bro Dale Richeson, the first missionary to Korea and I wanted to make sure of more facts about the reason for the need to move. He also told me the same information of Bro. Holton's strong religious conviction of the Biblical impropriety of a church or churches operating a college. I later was told that Bro. Holton was of the Anti-group of church members who did not believe in not only not overseeing a college, but it was wrong to even support colleges with Church funds.

This understanding that Bro. Cheshire was the founder of the college was never doubted or mentioned or discussed in all of these years. Then I heard a rumor that Kim Chin Kon had talked to someone about this and wanted to change the founder to Bro. Holton. After this at the yearly K.C.C. memorial services when the history of the college was read, it mentioned Bro. A.R. Holon was the founder. This was the first time I had ever heard of such a thing publicly. As I left the Memorial ceremony I was headed back to my office and met alumnus Min Jung Ae who had been a student since 1959 or 60. I asked her if in all the past years had she ever heard the Bro. Holton was the founder of the college? She answered "Yes" which was a great surprise to me, so I asked her when she had heard this, and she said just now at the memorial ceremony from

which we had just come. She said she had never heard anything of anyone ever being the founder except Bro. Chesshir. I met with Kim Chin Kon and discussed this with him, and he said that he felt this was true and it was needed to be done for the furtherance of the college and tried to persuade me to agree with him. When I told him I had never heard of such a thing and that it obviously was not true he was terribly upset.

Two years later I was going to the States to visit my supporters, and one was in San Antonio Texas. I had heard Bro. Holton's daughter lived there. So, when I arrived, I went to see her and asked her about the rumor going around that her father was the founder of the school, she very strongly and emphatically said such a thing could never had been for he was an extremely conservative Christian and that he felt it was wrong and therefore that is why he asked Haskell and the others who wanted to go towards a full-fledged college to please find facilities off the Hyo Chang Dong Mission property. This rumor soon turned into a very divisive subject. Two years after that, I again went to the States and went by San Antonio and talked to Bro. Holton's daughter again and told her of the escalation of the teaching of her father having been the founder of the school. She once more emphasized it impossible for her father with his strong feelings about the church as he felt he could not oversee a full-fledged college and that him being the authority for the Hyo Chang Dong property, he would have to be responsible for the school as well.

Since then, I have seen much archived information concerning this and in it, I have not seen any unquestionable evidence to verify anyone except Haskell was the founder. As for the evidence that Bro. Chesshir was the founder, and that Bro. Holton was not the founder is as follows. This is sufficient evidence to settle this distortion of history.

One piece of evidence is that we have no evidence of Bro. Holton ever claiming

to be the founder of the school, no records of him being the founder and no need for him to be the founder and there would have been no reason for him to be the founder for the school started in April 19th and Bro. Holton left Korea three months later in July 1958. Plus, Bro. Holton was religiously opposed to the Church involvement in Christian education. There are no records anywhere where he said he ever wanted to found a school, nor of him starting the school. Whereas there is a plethora of evidence that Bro. Chesshir doing all of these. I have never heard of any of Bro. Cheshire's family ever having had heard of Bro. Holton being the founder or saying he ever was, yet all of the Chesshir family all agree Haskell was. Several of the missionaries who worked daily with Bro. Chesshir never heard of Bro. Holton being founder, yet they all agree that Bro. Chesshir was the founder. Where is there any evidence of Bro. Holton being the founder until the later part of the past century and why was this not mentioned or brought up in discussion until then?

Also, this has brought up many negative possibilities as to why there are those who want to change the founder. The most I have heard suggest it has come up to trying to manipulate the school where individuals who would be the owners would eventually benefit monetarily from the final selling of the property. These, however, have only appeared to be speculations but the negative rumors have hurt the school. Also, Bro. O.P. Baird, who was like Bro. Chesshir, sponsored by the 16th and Decatur church, said Holton has never been the founder, only Bo Chesshir. There is also the question of Bro. Holton having been the first president. If this is true about Bro Holton, being the first president, it really has nothing to do with whether Bro. Chesshir we the founder or not. If he had been, it could have been only for the three months as mentioned above.

The following is a quote of a letter from Bro. O. P. Baird dated Nov. 4th, 1998, discussing the founding of K.C.C. "The school was established by Haskel

Chesir, A.R. Holton had nothing to do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He did not approv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school. He felt that the church was too small and too weak. He thought the efforts for the few workers should be given to building up the churches and making them strong. Then it would be time to establish a college. Sister Holton gave me this information”. So said Brother Baird*

One has to be most careful when researching and writing of history for what is written is either a truth or a lie and every time it is read, it is another truth or another lie that is told and those of us who write history are responsible to God to insure only truth comes from us for our souls may be in danger due to God’s statements in Rev. 21:8 and 22:15 of none who practice lying will be in heaven. No falsehood embellished or twisted truth is worth that. All historians rightly receive the praise they are due for full accuracy in their writings, and they deserve the Godly punishment and public shame of the falsehoods that are found there now and in years to come. I do hope we have none of these kinds of writings later in the future. The Good Book tells us that “your sin will find you out” Num. 32:23. Time tells all! Truth lives forever!.

*(I will be happy to provide a copy of this letter to any who may ask for it by Email. I also might add that Bro. Baird was the most honest and ethical man I have ever met.)

Malcolm E. Parseley

Straw Shoes

(Rice Paddies and Cotton Fields)

Haskell Chesshir was a friend and rescuer to orphans, widows, homeless, hungry and dying refugees. He visited people in prison and hospitals. In many ways he reached into the broken nation of Korea to lead in rising up again from the ashes of a terrible war! He was a loving father, husband and a mighty man of God. He was a servant to mankind. He carried the gospel of Jesus Christ with good tidings, wherever he went! In 1954, he took his wife and young family of four children, on a French freighter boat across the Pacific Ocean and Sea of Japan to Tokyo and then Korea! He passed from this earth after many victories for the kingdom of God in 2003 in Nashville Tennessee.

Haskell was born in Arkansas, USA in 1916. He was the son of John Newman Chesshir and wife, Eugene Chesshir. The Chesshir families in Arkansas were farmers and church planters. The environment of Arkansas was too difficult on Haskell's health when he was a baby. The Doctor recommended moving to a drier climate. The family left their relatives and mountain home of Arkansas to a very dry climate in North Texas when Haskell was only three years old.

There in Texas Haskell grew up as a hard working farm boy, plowing the cotton fields, and vegetable fields with mules and horses. In his spare time he read books and dreamed someday of traveling the world! Two of his sisters and a brother died from hard conditions. The John Newman Chesshir family experienced some of the most difficult times in America during the "Dust Bowl" days 1930 to 1936. The wind stripped the land of vegetation, and also came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 1941. The Depression devastated every American family, causing many people to move away from farm life to the city. It was

a time of disaster and grief in America where at least Seven million and many more died of starvation, disease, and suicide from broken hearts and dreams. The Chesshir family survived on the little Texas farm until Haskell was sixteen years old and then he left the family farm life around 1932 to go on the road searching for work. He survived as a sales man of Bibles and family photo portraits to find his way into the future and become a missionary as his heart's desire..

Our father Haskell later met Enid Nadara Huff at David Lipscomb College while he was preparing in Education for his future as a missionary to Africa. They married in 1941. However World War II in 1941 came with bombs over Pearl Harbor and our father's life forever changed when he was shipped by the United States Navy to Pearl Harbor in Hawaii.

At Pearl Harbor He worked with medical units helping the sick, wounded, and dying. The Navy boys who had been stationed in the Philippines and various strategic war stations around the world came by ship or plane to Pearl Harbor to heal from their wounds of war.

Haskell, a sailor for the U.S. Navy, began his first missionary work with military friends at Keeaumoku Street Church of Christ in Pearl Harbor. It was there our father used his gift of preaching and his skill as a salesman by knocking on doors in the local neighborhoods and inviting people to come to church and worship with them. His navy duties, along with church, social work, and preaching in the Hawaiian Islands was a full time ministry for Haskell. When our mom arrived at Pearl Harbor with Jenetta who was three years old, it was a joyful reunion. Our sister Sherry was born in Honolulu in 1946. Phillip, their first born son, would be born three years later when the Chesshirs' returned to Nashville Tennessee in 1949.

After his Navy service was completed Haskell remained in Hawaii as a

civilian “preacher “ and social worker, at Keeaumoku Street Church of Christ in Honolulu. While in Hawaii, Haskell’s vision and dream expanded to build a Christian training campus and school of higher education. His plan was to teach the Hawaiian people and the many immigrants in the Islands regarding “Kingdom work” and service for God. It was in Hawaii his plan to teach faithful people of God to teach others for Kingdom growth began to flourish rapidly in the Keeaumoku Street Church. His desire was to evangelize the whole world.

Soon my father realized in his plans to build a school that he may need more personal education for himself for such a large endeavor. Haskell decided to return with his family to Nashville, Tennessee and further his studies for future work building a school in the Hawaiian Islands. Shortly after the family’s return to Nashville, the war of 51 in Korea broke out.

The communist party wanted to take all of Korea for their devastating plan of world domination. Three years later, after more than 3.2 million lives were lost in the Korean War, most families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s they fled from North Korea to the south.

As soon as the conflict came to a ceasefire in 1953 the call to go help the Korean nation came to my father’s ears. Men, like the most respected S.K. Dong, were pleading with young missionaries to come to Korea! When the battle ceased fire in 1953 Haskell was ready to go, even though his schooling was not complete. Peace was the hope for the new “Republic of Korea.” The American people, including the U.S. Army would reach out to help the war-devastated country and rebuild Korea! Haskell Chesshir responded to the call to Korea and commissioned 16th and Decatur Church of Christ in Washington D.C. to support his family to go to Seoul Korea and establish the first Church of Christ “Mission to Korea”!

Haskell Chesshir and family came in November 1954, as the first missionaries

after Dale Richison had come previously by six months to settle a compound in Hyo Chong Dong Seoul, for the Church of Christ Mission to Korea. He opened the doors there in Seoul but did not remain there. On our property in Hyo Chong Dong, Haskell raised the funds and built a one story building for Harry Holt and then "Holt Orphanage" was established on our property. Also a church center for worship, a mission home, offices, and Korea Christian Institute was begun there. KCI was founded at the Hyo Chong Dong compound by our father Haskell Chesshir and on April 19 1958 registered through the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affairs in Seoul and soon after, Korea Christian Institute was renamed and recognized as KCC or "Korea Christian College" by the first "Ministry of Education" for the ROK in Seoul, Korea. The motto was the same just as in Hawaii to "teach faithful servants to teach others the way of Christ" as in II Timothy 2:2. Our father realized he would not be a missionary to Africa, and he would not be a missionary to Hawaii but Haskell and Enid Chesshir would be a missionary family to South Korea to br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and healing to the people, and in time the Koreans would deliver the gospel to all nations. The Chesshir's were in Korea from the 1950's to the 1980's. Mark Haskell Chesshir was born in 1956 and Vicki Lynn Chesshir was born in 1958, both in Seoul, Korea. Donald Craig Chesshir was born in 1961 in Nashville, Tennessee. There were seven children in total born to Haskell and Enid. All are living in the United States today. The Chesshir's adopted a Korean refugee boy at age nineteen in 1958, and John Chesshir came to the United States to live. John passed away in 1987 in California. The Chesshir's also fostered Nam Yul Lee, a refugee of the 50's at the young age of 8 or 9 years old. Nam passed away in 2023 in Chattanooga, Tennessee. He had two Children Minya and Seoul, who live in Tennessee today with families of their own.

Haskell Chesshir, was a man of dreams, and vision, and completed his life

work for the Kingdom of God in 2003 and peacefully passed to go to God for Eternity.

Haskell and Enid Chesshir were the loving father and mother, patriarch and matriarch of the Chesshir family, with their Seven children Jenetta, Sherry, Phillip, Randall, Mark, Vicki and Don. They traveled across the Pacific Ocean from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o serve the Korean nation and make Korea their true temporary homeland on this earth. It appears they will all remain in the land of their home, America for now. There in Seoul Korea from 1954, our life and future began as missionaries in a land ravaged from war but ripe and ready as a harvest for Jesus Christ and the Church of Christ was established there. I was five years old at that time. I am Phillip, and I remember! We all remember! May the Lord continue to bring unity, love, peace, and gospel salvation through Christ, to all in Korea and unite all in peace when Christ returns! And may the gospel continue to spread from Korea across the nations of the world just as L. Haskell Chesshir dreamed and saw the vision. Peace to all, until Christ comes again in the clouds one day! Amen!

Phillip H. Chesshir

The motive and purpose of the Chesshir Foundation

During the early winter of 1954, a young missionary came to Korea with dreams and visions born from the Gospel of Jesus Christ. It was Jesus, God's Son who came to redeem and liberate mankind. This is the Gospel our father preached when he came to Korea. It was the power of God's word and God's presence in our world, that would redeem the Korean people. The visions my father shared with Korea was to transform Koreans from victims of war and poverty, into ambassadors of Light (1 Peter 2:9).

According to our father's dreams, Korean missionaries would carry the good news that Jesus taught into Asia and Korea would be the staging ground, then Korean missionaries would go into the furthestmost parts of the world with the Gospel.

It was 70 years ago when Brother Chesshir began baptizing new believers in the 한강. He preached the good news that God has sent His only Son to earth, to live among us so that we might live in relationship with Him, our Father God. That was the purpose of our father's mission to Korea. Yet, as he established churches and fed the hungry and clothed the poor, he acted on a dream that he was given to start a school that would train Christian workers to train others.

This was based on 2 Timothy 2:2.

The L. Haskell Chesshir Foundation commemorates the work of our father, L. Haskell Chesshir which began in Korea 70 years ago. So much has changed since April 19, 1958. The L. Haskell Foundation is intended to be a resource

of historical, factual information to chronicle the actual events that led to the founding of the school. The motivation and purpose of the Chesshir Foundation is to keep Brother Chesshir's dreams and visions alive for future generations until Jesus comes again. While it is important to commemorate the life of a man who called others out of darkness into the glorious light of God,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how and why the school was founded by our father.

We know that the purpose of the school and the mission of the school was to spread the Gospel of Jesus to all mankind. 최수열 understood that Korean believers must be trained in order to train others and so he began in earnest to develop a school which was written about in the newsletter of his sponsoring congregation, 16th & Decatur Church of Christ, in 1956. The newsletter reported 'that the school Brother Chesshir was developing, the progress of the school was ongoing.' In remembering the work that he did we must understand why he founded the school which became Korea Christian College and finally Korea Christian University.

Before our father came to Korea, he intended to start a school in Korea that would facilitate the dreams and visions he had for the Korean Church. A young Korean American in Hawaii, Johnny Shen, after hearing my father preach, encouraged him to start a school in Korea for the very purpose of spreading the Gospel. My father was also encouraged by Brother S.K. Dong who had written numerous articles in Church of Christ publications in the U.S., pleading for American missionaries to come to Korea and preach the whole Gospel of Jesus to the Korean people. While it is good and honorable to honor Brother Chesshir for his dedication and resourcefulness, he would be the first to say that all his endeavors in Korea were simply his 'reasonable service.' After all, Jesus is the only One who died for us and we are all lost without Him. But my father was

simply a servant of our Lord.

Remember, as the school was being developed in the early days of Brother Chesshir's work, He was teaching a group of ministers in a Bible class at Hyo Chong Dong. A minister from North Korea stood up and said, Brother Chesshir, we don't need you to preach us the Bible. We have Bibles. We are hungry. My father was embarrassed at his lack of sensitivity. Out of that he would later create the Cows for Korea program which brought beef and milk to the Korean people.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the cows he and other missionaries worked so hard to bring to Korea? The Juridical Person Board sold the herd and eventually the KCC land for millions of dollars. Where are those former board members? Where are the Cows for Korea? Where is the land Brother Allen, Brother Goolsby and Brother Chesshir worked so hard for to benefit all Koreans?

Now the L. Haskell Chesshir Foundation was established to commemorate Brother Chesshir's dedication but also to maintain the purpose and mission of the school. A school that he alone conceived of as God had revealed to him. As our father stated in 1983 when his life was threatened, 'The school is not for sale'.

As Dr Kee has stated, 'Brother Chesshir founded KCU as a Christian college for Korean Christian and Asian missions, never as a regular secular college.' Dr Kee also maintains that the name change of KCU to Kang Seo University was and is intentional in order to establish a secular institution. The L. Haskell Chesshir Foundation stands to make clear that KCU is a Christian university intended to train leaders of the Church of Christ for the purpose of spreading the Gospel of Jesus Christ.

How is it that half of the KCU board members are not even members of the Church of Christ ? There are some who do not even express faith in Jesus? Strange, why would members of the Juridical Person Board, want to be a part of a Christian school intended to train Christian workers? Over the years, misinformation has been propagated that there were other co-founders of Korea Christian University. This is not true. The reason for these lies, is so that some individuals might manipulate the law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of this University in order to privatize the university, to monetize their positions. These individuals have no relationship nor care about the sacrifice of Brother Chesshir as Founder, nor do they consider the other missionaries and members of the Churches of Christ in Korea. Brother Chesshir named the school after Korea. He didn't want money or titles. This school was founded for you the Korean people. This school was founded to train followers of the Lord Jesus Christ. This secularization has happened with other universities such as Yonsei, Harvard and Yale. How did that work out for them? Are they happy, content? Can you imagine Hyundai or Samsung being forced to have Church of Christ members on their governing Board? Of course not. The purpose of the school was defined by the Founder based on God's word.

My encouragement to you the reader if you are indeed a believer in Jesus. Stand up to the darkness. Shine your light, as Jesus taught us. May we endeavor to speak the truth in Love and may those who have come to steal and destroy be found wanting and yet even now, may we all turn to the mercy of our Lord. May we continually call on the Name which is above every name and to which every knee will bow, in heaven and earth. Amen.

Rand H. Chesshir

Mark's understanding and perception on the issue of Korea

I want to make this simple and to the point! There is no need to put blame on any one and go into things that will not benefit the desire that we have as a family. We know the story and now I hope the time will come when there will be unity to those who love and serve the work and mission of KCU. Yes, I know that's not the name anymore.

We all know that it was the vision and work of Haskell Chesshir to establish the school, and he was the sole founder of KCU. There was no other founder of K.C. U. This was documented by the Department of Ministry of Health and family affairs in Seoul Korea and registered on April 19, 1958 as Korea Christian Institute, later to become Korea Christian College, and then Korea Christian University. It was his dream to establish the school which would provide a strong academic background, but whose mission was to "Teach faithful men and women to teach others" the gospel of Jesus Christ.

The early years brought people to complete their education at KCC and eventually, they set up an alumnus that continues to this day to meet and fellowship with each other. They are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foundation that is needed to stand strong and bring current and future alumni together to keep the school committed to the education and spreading of the gospel of Jesus Christ. Many were there in the beginning and are witnesses to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On behalf of our father, we as a family know the truth. Not only was our

father the founder, but some people have fabricated a false history to take control and lead the school in a different direction.

During the last many years, and now just weeks ago, we have met with the alumni and others including one board member of the school. It is clear that many of the alumni want to set the record straight to give the school a chance to continue its mission.

We encourage the alumni to unite to bring the truth and restoration regarding the original founding of KCU and its history for its future growth and stability. We must all agree, including any board members on these two truth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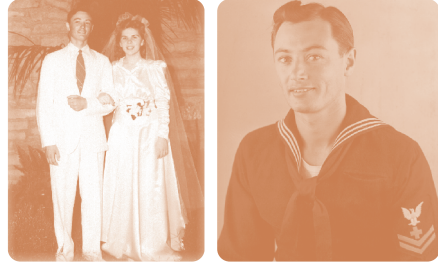
1) L. Haskell Chesshir is the sole founder, and 2) The purpose of the school is to "Teach faithful men and women to teach others" in the way of God's word. Then these truths can be presented to the Ministry of Education as one voice, united in Christ Jesus, with the authority and leading of God.

God knows what has taken place since 1954 when we arrived in Korea. The walls are falling down on those who are evil and corrupt and have taken advantage of the original purpose. God will not be mocked. God will bring justice. God will bring restoration. It's what God has promised in His word! Stand strong and be united in Christ in love, grace, mercy, and truth.

Mark H. Chesshir

최수열 선교사 연보

BIOGRAPHY OF LEWIS HASKELL CHESHIR
1916.4.24. - 2003.7.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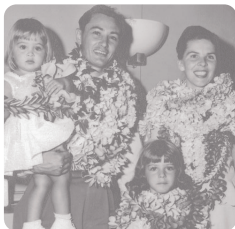


1916~1950

- 1916. 4. 24 부친 뉴먼(John Newman), 모친 해리슨(Eugene Harrison)
미국 아칸소주 센터 포인트(Center point)에서 출생
세 살 때 텍사스주 터키(Turkey)로 이사
유년기 때부터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신앙생활
- 1931 나이트(Lelian Knight) 전도자로부터 침례
- 1940~1942 대빗 립스컴 주니어 대학(David Lipscomb Jr. College) 졸업
성서전공
- 1941. 6. 애니드(Enid Nadara Huff 1923-1988)와 결혼
- 1942 지역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첫 설교
- 1942~1945 해군복무(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와 하와이주 진주만에서 복무)

1916~1950

- 1945~1948 하와이에서 선교 활동
- 1946~1947 하와이 대학교(University of Hawaii at Mānoa) 수학
- 1946~1948 하와이 호놀룰루 키와모쿠 스트리트 그리스도의 교회
(Keeaumoku Street Church of Christ) 전도자로 사역
- 1948~1950 데이비슨병원(Davidson County Tuberculosis Hospital) 원목
- 1948~1952 테네시주 내슈빌시 에잇에비뉴 그리스도의 교회
(Eighth Avenue Church of Christ)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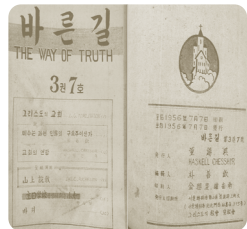


1951~1955

- 1950 대빗 립스컴 대학(David Lipscomb College) 졸업(B.A.)
역사, 사회학 전공
- 1952 스칼리트대학원(Scarritt College, Vanderbilt University) 졸업(M.A.)
사회사업 전공
- 1952~1954 테네시주 내슈빌시 파크애비뉴 그리스도의 교회
(Park Avenue Church of Christ) 사역
- 1954 워싱턴디시 16가와 디캐처 그리스도의 교회
(Sixteenth & Decatur Church of Christ) 한국선교사로 자원

1950~1955

1954. 10. 15. 워싱턴주 에베렛(Everett, Washington)에서 화물선편으로 출발
1954. 11. 29. 일본 경유하여 한국 도착
1954. 11. 한국에서 선교활동
- 1955 동석기 전도자와 바른길 창간 (바른길 → 그리스도의 교회 → 참빛)





1956~1962

- 1958. 4. 19. 한국기독교학원(현 강서대학교) 설립
- 1960. 3.15. 대학 및 선교사 사택 용지 매입
- 1960. 9. 1. 대학 이전(서울 동작구 상도1동 45)
- 1961. 3. 대학과 선교사 사택 건축 시작

1956~1962

- 1961. 7. 등촌(현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 1961. 7. 15. 제1회 졸업식
- 1961. 11. 1. 한국기독교학원 제2대 원장으로 취임
- 1961. 11. 3. 대학 이전(서울 강서구 화곡6동 산204)
- 1962. 1. 22. 등촌고등공민학교 개교
- 1962. 7. 1. 최수열 기념관 머릿돌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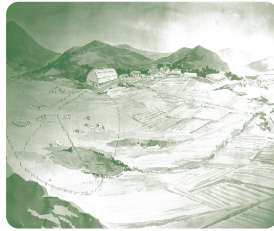
1962~1967

- 1962~63. 한국에 젓소 보내기 운동(Cows for Korea) 전개
 1963. 5. 31 홀스타인 젓소 92마리 도입
 1963. 10.10. 대학 부속 목장(KCC Farms) 설립

1962~1967

1963. 11. 8. 등촌(현 강서)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건축
 1964. 1. 31.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회 설립
 1965. 2. 5. 학교법인 설립
 1966. 1. 서울시로부터 850여평 환지(서울 강서구 화곡동 24-268)
 1967. 1. 29. 화곡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시드니 알랜 선교사와 동역)
 1967. 3. 6. 화곡유치원 개원(시드니 알랜 선교사 동역)





1967~1999

- 1967. 2. 대학 부속목장 부지로 46,000여 평 매입(경기도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
- 1967. 6. 직업교육훈련원(Vocational Education Training Center) 설립
- 1969. 10. 홀스타인 젖소 20마리 도입
- 1972~1975. 그리스도의 교회 정기간행물 크리스천 크로니클 편집인 (Christian Chronicle)

1967~1999

- 1981. 11. 15. 동서(현 선교연합교회) 그리스도의 교회 설립
- 1996. 9. 4. 최수열 선교사 외 창립이사 5명 “기독교대학 설립 목적” 성명서 발표



최수열 선교사



댄 하딘 선교사



이철선 선교사



파수리 선교사



빌 램시 선교사



알렌 선교사

J. Haskell Chesshir
L. Haskell Chesshir

William A. Richardson
William A. Richardson

William R. Ramsay
William R. Ramsay

Daniel C. Hardin
Daniel C. Hardin
Malcolm E. Parsley
Malcolm E. Parsley
Sidney N. Allen
Sidney N. Allen

교계 소식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롬16:16)

하늘정원 그리스도의 교회 (정기원 목사)

주님께서 주신 지상명령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을 복음화시키려는 원대한 선교의 꿈을 갖고 익산에 세워진 하늘정원교회는 간접선교 방법으로 작은도서관 운동을 통한 지역선교를 하고 있다. “독서는 개인과 국가의 저력이다”라는 표어를 걸고 지역주민과 어린이들을 상대로 책 읽기 운동을 활발히 전개한다. 하늘정원교회는 부설 책사랑 작은도서관 건물을 아름답게 짓고 지역에 개방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늘정원교회 정기원 목사는 일찍이 지역주민을 위한 도서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전주대학교대학원에서 문헌정보학으로

석사학위와 도서관운동 분야로 명예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사단법인 한국작은도서관협회를 조직하고 전국의 300여 개의 작은도서관을 지원, 총괄하는 이사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특히 전국 LH 아파트 내에 도서관을 개설토록 독려하여 LH 작은도서관 지원센터장으로 책 읽기 운동을 장려하고 있다. 7년차 LH로부터 용역비를 받아 금년 210개 LH 작은도서관에 8개월 동안 작은도서관 커뮤니티매니저(직원) 급여와 문화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하여 다양한 문화 활동을 펼치도록 돕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LH 임대 아파트 단지가 활기찬 문화공간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교회와의 연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구상하고 있다.



하늘정원 그리스도의 교회당



교회 부설 책사랑작은도서관



지역주민을 위한 작은음악회(강한샘 바이올리니스트 초청)



아파트 주민에게 책 읽기 강의



27년 진행해온 전북특별자치도 어린이다독왕선발대회

정기원 목사는 기독교 수필가로서 지역 신문, 잡지 등에 꾸준히 기고하여 좋은 평판을 받고 있으며, 책임기운동으로 지역사회를 섬긴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라북도도지사, 전주시장, 익산시장 등으로 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 산서 그리스도의 교회(권문주 목사)

산서교회는 54년의 창립 역사에 걸맞게 “나눔과 섬김의 예수공동체”를 교회 표어로 정하고 부설 「나눔의 집」을 세우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있다. 산서 나눔의 집은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라”는 말씀대로 행하고 있는 모범적인 교회이다. 농촌교회로서 재정이 넉넉하지 않음에도 여러 기관을 후원하는 선교하는 교회이다(몽골, 남원장애복지, 기아선교, 월드선교, 열린교회, 북한어린이, 영상선교, 참빛). 권문주 목사는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감안하여 노인을 위한 복지시설 설립을 계획하고 있다.

■ 영흥 그리스도의 교회(창영수 목사)

영흥교회는 “책은 성경만, 신조는 그리스도만, 주장은 복음만, 일치의 기초는 성경만으로, 본질에는 일치, 의견에는 자유, 매사에는 사랑으로 한다”를 기본교리로 초대교회의 신앙으로 돌아가는 환원을 실천하며

열방 선교를 지향한다. 창영수 목사는 부설 「열방후원선교회」(2017년 1월 19일)를 조직하고 이슬람권 복음 전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후원계좌, 농협 351-0926-9797-93). 예배당 벽면에는 이슬람권 국가들의 국기와 상세한 내용을 걸어 놓고 이들 국가의 복음화를 위하여 24시간 기도하고 있다.

■ 영암 그리스도의 교회

영암교회는 영암읍 내에 있으며, 월출산이 보이는 아름다운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이번에 오래된 예배당과 사택을 깔끔하게 수리하여 새로운 건물처럼 아름답게 단장하였는데, 이를 위해서 주위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헌금과 노력 봉사로 도왔다. 영암교회는 김진산 목사가 별세한 후, 후임 목회자가 없어 서호중앙교회 정성일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영암 그리스도의 교회당

2024년 그리스도의 교회 주일

매년 10월 중 그리스도의 교회 주일을 통해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위한 기도와 선교와 구제를 위해 협력하고 있다. 2022년에는 모여진 헌금으로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부교역자 및 신학생 도서비 지원을 하였고, 2023년에는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 100주년 기금 모금을 하였다. 2024년에는 모여진 헌금 전액을 선교국을 통해 선교비로 활용될 예정이다.

제23회 그리스도의 교회 선교음악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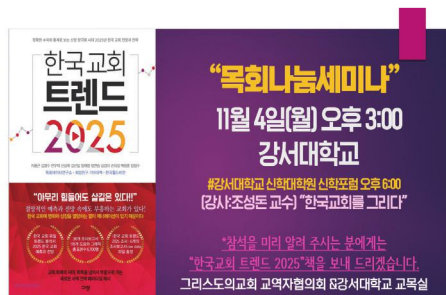
땅끝선교회는 그리스도의교회 교역자협의회와 강서대학교 교목실 후원으로 지난 11월 3일(주일), 오후 7시, 강서대학교 하당

관 대강당에서 '제23회 그리스도의교회 선교음악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1부는 오프닝으로 '하모사랑 트레몰로 하모니카 앙상블(지도:임학균) 연주와 축사 및 여는 기도를 하용수 교역자협의회 회장이 하였다. 2부에는 효창교회, 목동교회, 춘천교회, 화곡교회, 하늘소리 합창단, 청량리교회, 치현교회, 일산교회가 참가하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중간에 땅끝선교회 회장인 조영호 목사의 선교보고가 있었으며, 전신호 교목실장의 축도로 마무리하였다. 선교음악회 수익금은 네팔 당(dang) 지역의 벨엘 그리스도의 교회 건축을 위해서 사용될 예정이다.



목회나눔세미나

강서대학교 교목실과 교역자들이 협력하여 교역자들의 목회 사역 나눔과 재교육을 위한 “목회나눔세미나”를 기획했으며, 첫 모임을 지난 11월 4일(월), 오후 3시, 강서대학교 대학원 강당에서 가졌다. 참가 신청자들에게 「한국교회 트렌드 2025」 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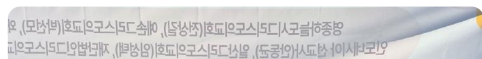
를 미리 제공하였고, 이날에 임진철(화곡교회), 최의성(대학교회), 신성호(아주교회) 목사가 요약발표 및 토론회를 진행하였다. 35명의 목회자와 대학원생들이 함께 하였으며, 신학대학원에서 제공한 도시락으로 저녁을 먹은 후 저녁 6시부터 신학대학원 학술세미나에 참여하였다. 12월 모임은 12월 3일(월) 오후 2시에 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해외 기독교 유물 초청전 ‘영감 Inspiration, 흔적 Traces’을 관람하고 토론을 가질 예정이다.

강서대학교 일반학과 신앙수련회

강서대학교 교목실은 지난 11월 7일(목), “우리 행복하자”(신 33:29)는 주제로 일반학과 신앙수련회를 실시하였다. 금번 수련회는 대강당에서는 복음마술과 찬양토크콘서트를 본관에서는 교회상담, 종이비행기전도, 캠퍼스전도단, 성경OX퀴즈, 성경이야기 그림그리기, 보드게임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그룹으로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금번 수련회는 오병이어 프로젝트로 여러 교회들과 개인의 후원으로 약 700여명에게 햄버거와 음료, 그리고 오전과 오후에 간식을 제공하였고, 교목실과 조교들, 그리고 신학과 학생들과 지역 목회자 및 사모님들이 함께 협력하여 일반학과 학생들을 섬



졌다. 함께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모습이 계속 되길 기대한다.



참빛



후원계좌 국민 802001-04-271579 참빛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롬 8:28)

2024년 후원교회, 후원 기관, 개인 후원자 명단

교회와 기관

고강제일교회(김정영)	기흥교회(조시온)	난산교회(김성도)
꿈이있는교회(한정현)	내수중앙교회(전승철)	동성교회(최이규)
등대교회(임학균)	부산중앙교회(하재우)	인다움교회(김용철)
목동교회(김진두)	변영로교회(최규용)	산돌교회(박일광)
산서제일교회(권문주)	서울교회(배인호)	성산동교회(이준)
성지교회(허상혁)	생명나무교회(김계하)	세종 으뜸교회(서재룡)
여수교회(주정철)	영흥교회(창영수)	울산강남교회(신용문)
제주온평교회(박상철)	은평교회(황인성)	일산교회(임성택)
주안교회(조지형)	주월교회(정춘석)	제주중앙교회(함동수)
전도교회(황인범)	창원교회(전창덕)	청학동교회(조창목)
춘천교회(하용수)	치현교회(임수규)	태릉교회(고금석)
하늘정원교회(정기원)	학동교회(정승우)	한길교회(최승기)
한우리교회(하태오)	효창교회(윤봉주)	화곡교회(임진철)
선교연합교회(원영희)	로템교회(이우영)	강서노인복지관(임무영)

개인

곽성진 곽용기 김대중 김명수 김무근 김문하 김태호 마주리
박순미 신현심 유연웅 정민석 정종성 조수행 한성심 무명(수원) 무명(울산)
기준서 임창호 정득선

발간기금

김태호 이우영 전신호 김대중 이철수 최종술 현길환 황충룡 배인호
박순미 김명수 정남수 무명(수원)

편집 후원

김문현 김진희 김익진 김태호 최종술 정남수



QR코드를 스캔하면 「참빛」에
대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
<http://truelight.at>

교회와 개인이 보내는 후원 헌금은 참빛 발행에 드는 직접 경비(출판비, 편집비, 우편 발송비, 사무용품비 등) 외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발행인과 편집위원들은 자비량으로 봉사합니다.

참빛의 신앙적 입장

「참빛」은 성경적인 교회를 회복하고 교회일치운동을 전개함에 있어서 본질을 기본적인 교리로 믿고, 비본질을 문화적인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이에 따라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매사에는 사랑으로 함께할 것을 주장합니다. 이 같은 신앙적인 지평 위에서 형제의 개념을 본질에는 동질성이 있어야 하며, 비본질에는 다양성 속에 일치성이 있어야 합니다.

참빛의 편집 방향

「참빛」이 지향할 기본 편집원칙은, 신약교회 회복을 위한 환원운동의 확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전인적 신앙성숙을 위한 안내서 역할, 교계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양함에 있습니다. 참빛에 게재된 원고에 대한 책임은 발행인에게 있으나, 성경적인 신앙의 문제는 필자에게 있습니다. 이 같은 편집원칙 위에서 「참빛」의 문은 모든 분에게 열려있습니다.

참빛에서 알립니다.

「참빛」은 필자 개인의 정치적인 견해나 특정인의 이름과 활동을 거론하는 내용은 게재하지 않기에 필자의 동의 없이 삭제함을 알립니다.

2024년 11·12월호
통권 406호 (제55권 6호)

● 발간처 참빛사

서울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 57-7
07958

● 전화 010-3078-0143

● 계좌 번호

802001-04-271579 국민은행: 참빛

● 창간

바른길(1955년)
그리스도의 교회(1962년 7월)
참빛(1964년 8월)

● 등록

1966년 2월 18일 라682

● 복간 등록

1988년 5월 17일 라3647

● 출판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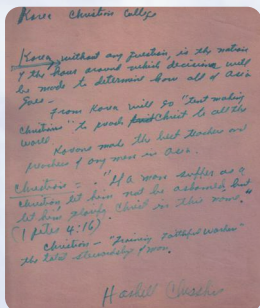
2018년 10월 17일 2018-000057

● 인쇄소 가나문화사 (02-2273-1849)

● 인쇄 2024년 11월 20일

● 발간 2024년 11월 20일

나는 한국에서 죽으려 한다



1954년 겨울은 매섭게 추웠다.

전쟁은 모든 것을 파괴하여 처절하고 참혹했다. 치열한 동족상쟁을 겪고 난 민중의 삶은 고달팠다. 희망이 없는 얼어붙은 척박한 땅에, 벽안의 청년선교사 최수열(Lewis Haskell Chesshir)은 따뜻한 생명의 복음을 들고 왔다. 단지 한국만을 복음화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전체를 복음화시키겠다는 큰 꿈과 비전을 갖고 이 땅에 왔다. 꿈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 대학을 세워 충성된 일꾼을 훈련시키는 것이다. 빗바랜 메모지에는 그의 꿈과 비전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국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국가이다. 한국의 자비량 크리스천(Tent Making Christian)들이 전 세계에 그리스도를 전할 것이다. 한국인은 아시아에서 가장 훌륭한 성경 교사이며, 설교자의 자질이 있다.”

기독교 대학을 세워 한국을 아시아 선교의 중심지로 삼겠다는 것은, 전쟁 후에 열악한 상황으로는 불가능한 꿈이다. 누구도 불가능하게 생각한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열정으로 해냈다. 미국 교회에 대학설립의 필요성을 설명하여 전폭적인 지지를 얻어냈고, 1958년에 기독교 대학(KCC, 현 강성대학교)을 세운다. 그러나 대학 캠퍼스를 만들기 위해 교지를 매입하고 건물을 짓는 일은 쉽지 않았다. 필요한 재원을 마련키 위해 미국으로 가서 전국교회를 순방하면서 간절하게 호소했다. 그의 간곡하고 절실한 호소에 많은 교회가 감동되어 적극적으로 협조함으로써 대학설립의 큰 뜻을 이루게 된다.

최수열 선교사는 꿈과 비전, 그리고 믿음의 선교사다. 항상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 할 것이 없리라(마 17:20).**”는 주의 말씀을 삶의 좌우명으로 삼았다. 불가능에서 가능성을 창조하는 그의 믿음과 열정을 보면서 동료 선교사들은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 “최수열은 꿈꾸는 사람 **dreamer**이다.” “최수열은 이 시대에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하려는 꿈과 비전의 프로모터 **Promoter**이다.”

“나는 한국에서 죽으려 한다”라는 그가 남긴 절절한 유언적 외침은 얼마큼 한국교회와 대학을 사랑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참빛 1974년 3/4월호). 그분은 한국교회와 우리 대학이 인생의 전부였다. 자신의 꿈, 젊음, 열정, 재산 등 모든 것을 남김없이 바쳤다. 그래서 그분의 노년은 가난했고, 연금도 없이 오두막집에서 힘겹게 사셨다. 그럼에도 자신의 뜻을 요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청빈하고 의연하게 사셨다. 이 땅 위에 삶을 마감하고 떠나갈 때는 조위금마저 우리 대학에 장학금으로 맡겼다.

유신의 「징조곡」에 음수사원(飲水思源)이란 말이 있다. 물을 마시는 사람은 항상 수원(水源)을 만든 사람의 노고를 마음속에 새겨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를 낳은 근본 뿌리 덕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롬 11:18). 올해로 최수열 선교사 한국선교 70년이 된다. 우리는 그분의 희생 정신을 되새기고, 그분이 남긴 선교와 교육 유업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디모데후서 2장 2절)



QR코드를 스캔하면 「참빛」에
대하여 보다 많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http://cafe.naver.com>
<http://truelight.at>
<http://kcucollection.net/>



9 772636 180005
ISSN 2636-1809